



## 이달의 포커스 뉴스

###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18P

### <김동배 공사참사관 이임 인터뷰>

Tôi rất yêu Việt nam!

27P

|                                         |    |
|-----------------------------------------|----|
| <창간 1주년 지면축사> 박노완 대사, 코참 김한용 회장 .....   | 2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 6  |
| <산업>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          | 18 |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23 |
| <이달의 주요인물> 김동배 공사참사관, 김운태 다낭무역관장        | 27 |
| <노무> 베트남 법인 소속 근로자 개인소득세 미납 최지웅 변호사     | 37 |
| <법률>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 김유호 변호사        | 39 |
| <금융> 잭슨홀 미팅, 한미 통화 정책 전망 .. 신한은행 S&T 센터 | 41 |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                 | 44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뚜옌광성> .....             | 46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              | 52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 57 |





##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박노완 대사 지면 축하



“교민, 기업인, 지상사 임직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어떠한 고난도 늘 불굴의 의지로 물리쳐 왔던 것처럼,  
희망을 갖고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그 희망의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법률·노무·금융·세무 등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주제별 전문정보에 대해서는 목말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1년 전 창간된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이러한 전문정보는 물론 시장동향, 유망 프로젝트 및 유망성 정보까지 포괄하여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묵묵히 그 임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매체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베트남 중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응웬 푸 쯙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에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각각 20만여 명의 양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국은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주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성취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되짚어 보고, 양국관계의 한 단계 격상을 통해 정무, 경제, 영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재외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언을 기대합니다.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해 계신 한국 기업인들과 재외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동제한, 조업차질, 노동허가발급 등 애로와 특별입국 지연 등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칙흑같이 어두워 보이지만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언젠가 코로나19 사태도 잠잠해지고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의 비즈니스와 생산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다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일주일에 약 500편에 달하는 양국 간 직항편 운항을 통해 한국인들로 북적되던 베트남 공항과 시내의 광경을 머지않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 주베트남대사관은 코트라를 비롯한 우리 공공기관, 코참을 비롯한 우리 경제단체, 진출기업 및 재외국민들과 함께 팀코리아 기치 아래 계속 협업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김한용 회장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꾸준히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코트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지금의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가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비즈니스뉴스’는 베트남 주요 뉴스, 거시경제 지표, 프로젝트 시장 동향, 세무·노무·법률 등 투자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베트남 경제 정보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 뉴스 내 기고문들은 깊이있는 내용과 뛰어난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베트남 내 한국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안내서가 될 ‘베트남비즈니스뉴스’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모로 고통을 겪는 기업이 많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체인 기업이 사기(士氣)를 잃는다면 우리 사회 또한 앞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살펴보면 난세에 영웅이 나왔듯, 지금과 같은 위기에 오히려 결출한 기업인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누구보다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호황기에 돌입하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험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일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베트남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출한 선배 기업인들이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금은 '자갈밭'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겠지만, 사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역사를 돌이켜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그 길은 '비단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업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협력 파트너로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690억 달러(수출 485억 달러, 수입 205억 달러)를 기록했고, 양국은 오는 2023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지만, 양국 간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로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한국기업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늘어날수록 베트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올바른 방향 제시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초심을 잊지 말고 한국과 베트남 경제의 현재를 조명하고 현실과 미래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베트남,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출 유의사항

- 베트남 자가진단키트 수입 시 허가 필요
- 무허가 진단키트 유통 단속 강화

### 베트남 보건부 등록 자가진단키트

현재 베트남은 확진자 급증 및 PCR테스트 비용 등의 이유로 자가진단키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8월 현재 베트남의 보건부 정식 인가 신속 자가진단키트는 베트남 자체 생산 브랜드인 Trueline Covid-19 Ag Rapid Test와 정식 수입제품 13종을 포함하여 14개의 브랜드가 있다.

### 진단키트 HS CODE 정보 및 수입관세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승인은 베트남 보건부에서 최종 관할 하고 있으며, 수입 HS CODE는 3822.00.10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 수입관세는 무관세이며, 베트남은 보건부 지정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부가세 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가 진단키트도 이에 해당하는 5% 부가세로 수입 가능하다.

### 자가진단키트 수입 절차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입 절차는 보건부 시행령 169/2018/ND-CP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분류 중 고위험군(범주 C, D)에 속하므로 수입 전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수입허가 및 유통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베트남 정부에 무상 원조 지원되는 자가 진단키트의 경우 수입 허가 및 유통 등록에서 면제되지만,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허가 및 유통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EMS(국제우편)나 특송 등을 통해 개인 사용용으로 수입하는 것 또한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사항이다. 이는 무허가 진단키트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자가진단 키트 수입을 위해서는 준비 서류와 함께 보건부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사점

600개 지점을 보유한 최대 베트남 약국 체인인 Pharmacy의 Thaodien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H씨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약국에서는 한국산 브랜드인 휴마시스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당 145,000동(한화 약 7,000원), 1박스(25개 키트)는 3,150,000동(한화 약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일 평균 70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 백신을 맞은 시민은 전체 인구인 9,600만 명 중 500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45만여 명이 2회 접종을 모두 마쳤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방과 보건 목적의 검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현재 베트남 자가진단키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기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관련 인증 절차 소요기간이 실제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료에 비해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 및 침해 시 대응방안

- 베트남 내 특허 출원 건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외국기업)이 다수 점유
-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진출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필수

###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요즘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 베트남은 아직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허 출원 건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외국기업)에 의한 출원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침해시 대응방안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민사, 행정, 형사 그리고 세관쪽을 통한 처벌 등 4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를 야기한 증거물에 관한 보존, 수집,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처분으로서 침해금지 가처분,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적 처벌로는 몰수, 경고 혹은 벌금을 포함하며, 검찰/경찰/시장관리자/세관/인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적인 처벌의 경우(징역형을 포함하여), 침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베트남 국경에서 세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수출입되는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세관절차가 일시정지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양도시 양도계약서 반드시 등록 필요

발명 특허와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가 반드시 NOIP(국립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는 반드시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등록된 재산권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시사점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다수 무역협정에 새로이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만큼 향후 지적재산권 환경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는 적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추후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법령과 환경을 잘 숙지하여 그에 따른 침해의 예방과 대응 조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취한다면 해외 비즈니스 운영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백신접종 현황과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와 ‘집단면역 달성’이 하반기 경제 성장을 결정할 것
-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국가이동 제한 및 기업의 신뢰도 하락,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전망
- 대면 소비 위축,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서비스 부문 계속해서 뚜렷한 성장 전망

### 1)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백신 접종 진척도와 방역 성과가 경제 회복도를 결정

베트남은 엄격한 통제에도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다소 뒤늦게 백신 수급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EPR)는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에서 백신 수급 및 집단면역 진척 상황이 베트남의 하반기 경제상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 개방적 대외교역 여건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제조산업·수출이 주도

상반기 산업생산지수는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다. 그 중, 가공 및 제조 산업은 주요 성장동력 산업으로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베트남 경기 회복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 3) 강도 높은 규제, 백신 수급 불확실성 속 복합적인 문제 공존

베트남 당국은 방역 조치와 효과적인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로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거리두기(총리 지시 제16호 연장)를 실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로 파생된 복합적인 문제들은 베트남 경제 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4) 대면 소비 위축,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서비스 부문 뚜렷한 성장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위축된 소비 부진을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택배 서비스 부문에 성장 요인으로 작용해 택배시장은 2020년에 7억 400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연간 1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팬데믹 영향, 외국인직접투자 둔화

1~6월 대베트남 FDI는 투자건수 총 3119 건, 총 투자액은 약 152억 2700만 달러(신규 등록 자본, 조정 및 출자 자본, 주식 매수 포함)로 전년동기비 2.6% 감소했다. 7월에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확산 전개로 공장들이 연이어 가동을 중단하면서 FDI 유입이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했다.

### 시사점

가공-제조산업 및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베트남 경제는 5~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 소비 회복과 글로벌 공급 능력 확충으로 인한 휴대전화 및 부품, 섬유제품, 신발 등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내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 및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는 제조산업에 큰 변수로 남아있다. 내수 서비스 산업은 코로나 확산세 완화에 따라 심각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의 아동 도서 시장 동향

- 베트남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유·아동 및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
- 2020년 한 해 베트남 도서시장 규모는 5억 9400만 달러를 기록

### 베트남 도서 시장 규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도서시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20.3% 성장을 거듭했으며, 2020년 한 해 베트남 도서시장 규모는 5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성장이 둔화되어 2024년까지 연간 평균 2.3% 성장하여 2024년에는 6억 51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서 번역본이 대세

베트남에서 출간되는 아동도서는 해외 아동 도서를 번역한 외서 번역본이 주를 이룬다. 베트남의 아동 도서 작가가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연간 발행하는 아동도서의 수도 적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해외에서 인기를 끈 아동 도서의 판권을 구입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한 아동도서를 출간하는 비율이 높다. 해외 아동 도서는 아름답고 선명한 삽화와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역시 외서를 번역한 아동도서 구입을 선호한다. 베트남 현지 아동작가들이 출간하는 아동 도서는 주로 수필, 시, 만화 등으로 과학, 기술, 역사 등과 관련된 베트남 현지 작가의 출간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 베트남 인기 아동 도서

베트남에서는 일본 Ehon출판사의 유아동 전집을 베트남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Xã Hội 출판사 (WABOOKS)에서 번역 출간한 전집이 유행이다. Ehon 유·아동 전집 시리즈는 총 98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들은 전집 시리즈를 통하여 색상, 도형, 야채, 숫자, 악기, 취미, 가족, 동물, 식물, 생활습관 등을 학습할 수 있다. Ehon 전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삽화는 단순하고 강렬하며 선명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호기심과 인지능력 발달을 돕는다.

### 시사점

베트남은 80년대 전 후에 출생한 20~30대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65%를 차지할 만큼 젊은 국가이며, 베트남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유·아동 및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4.3%가 될 정도로 높다. 베트남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베트남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시장이 꾸준히 성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중에서 유·아동 서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청소년 대상 서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활용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만화, 청소년용 소설 등을 번역해서 판매하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베트남 아동용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출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베트남인은 어떤 외국어 공부를 선호할까?

- 2021년 6월 기준, 베트남인이 향후 습득하고 싶은 외국어로 한국어가 2위에 올라
- 외국어 학습 시 YouTube 무료 강의, 무료 외국어 학습 앱, 유료 학원 수강 순으로 활용하는 등 무료 콘텐츠 선호 경향이 큼

### 현재 학습 중인 외국어 중 인기 1위는 영어, 배우고 싶은 외국어 2위는 한국어

베트남의 시장조사기관인 Q&Me가 2021년 6월 23세 이상 41세 미만 성인 남녀 728명에게 조사한 결과, 현재 학습 중인 외국어 1위는 전체의 86% 비율로 영어가 차지했다. 또한 향후 배우고 싶은 외국어 1위로 37%의 응답자는 일본어를 꼽았으며 이와 근소한 차이로 36%의 응답자는 한국어를 선택했다.

### 나도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은 자습과 무료 온라인 강의를 대세

조사 대상자의 49%는 YouTube 콘텐츠 및 외국어 학습도서를 활용한 자습을 한다고 밝혔으며, 35%는 무료 온라인 강의 수강, 29%는 오프라인 외국어 학원 수강, 27%는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성인 외국어 학습자는 유료 외국어 학습 보다 무료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어를 학습하는 이유

외국어를 학습 중인 조사응답자 728명 중 60%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보수를 올리기 위해서 외국어를 학습한다고 답변했다. 직장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49%), 외국인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44%),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하여(32%), 외국어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2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영어, 한국어, 일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인은 일반인에 비해 월 평균 임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10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주: (2021.6.28., 외국어 학습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728명 중 복수응답) / 자료: Q&Me

### 시사점

베트남 통계청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70% 이상은 35세 미만일 정도로 베트남은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다.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면 취업 시장에서 더 좋은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은 외국어 학습에 열심이다. 베트남의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베트남의 어학 교육 시장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중이다. 이에 따라 어학 교육 관련 콘텐츠를 웹페이지, YouTube 채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용하되, 무료 체험판을 이용해 보고 만족할 경우 유료 수강으로 전환하여 월 회비를 일정부분 납부하는 형태의 온라인 외국어 교육 시장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학습 앱, 또는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콘텐츠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한다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신 수급으로 재조명되는 베트남의 콜드체인산업

- 콜드체인산업 2016~2021년 연 10% 성장률 지속
- 백신 수급으로 관리시스템 및 기술력 중요성 대두

### 베트남의 백신 수급 현황 및 계획

베트남 역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 4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에 대한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베트남이 확보한 백신은 1억 5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500만 명 정도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2차 접종자 45만여명). 사실 백신 확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는 바로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운송이다. 안전한 보관과 운송없이 수급받은 백신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콜드체인이다.

### 베트남의 콜드체인 산업 현황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억 8000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운송시장이 창고시장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냉장냉동창고는 기업이 필요한 원료나 생산제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창고와 임대 목적의 창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계 업체와 베트남 현지 업체 모두 시장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출기업으로는 Lotte Global Logistics, Hanaro TNS 등이 있고, 베트남 현지 업체로는 Hoang Lai, ABA Cooltrans, Thang Long Logistics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상업용 전체 냉장 창고 규모는 약 60만 평럿으로 추정되고, 냉장냉동 차량의 대수는 약 700대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냉장냉동창고의 약 80%가 주요 항구가 위치한 호찌민 등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하노이 등에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베트남의 콜드체인과 백신수급

백신 보관을 위한 베트남의 콜드체인 인프라는 화이자 백신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여겨지나 아직까지 보관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70℃ 수준의 온도를 유지한 채 63개 지방 성시에 백신을 공급해야되는데 운송 수단과 육로 인프라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

### 시사점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이 계속 조명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바로 관리 시스템이다. 백신 수급으로 인해 냉장냉동창고와 운송에서의 관리가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현지기업들 역시 외국계 진출기업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보관할 수 있는 용량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여전히 현지 기업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요소이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본격 시동거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

-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 아세안 내에서 기후 변화 대응,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 선도적인 역할 기대

최근 ‘얼룩말’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얼룩말’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스타트업을 일컫는 말로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흑백 무늬를 가진 얼룩말에 비유된다. 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왔던 매출과 이익과 같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 윤리, 사회문제 등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며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경영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 현황 ① 환경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당장 2022년 1월부터 개정되는 환경보호법을 통해 탄소 배출 범위 할당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합법화하는 탄소가격제를 개도국 중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베트남 중앙은행(SBN)은 2019년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이 프랑스 개발청(AFD)과 1억 달러 규모의 녹색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 현황 ② 사회

베트남 정부가 2020년 9월 공포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제공, 성 평등, 불평등 해소 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 목표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결과로 빈민 구호 단체인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0년 불평등해소노력지수(CRI)는 158개국 중 77위로 아세안에서 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 현황 ③ 지배구조

베트남은 지난 2016년부터 ESG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17년부터 상장기업은 6개월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 내에서 ESG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나밀크는 양성평등, 노동자의 안전 보장 등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개선에 힘써 3년 연속 베트남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1위에 올랐다.

### 시사점

소비자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지속가능발전기업협회(VBCS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지수를 적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산성과 사업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수를 적용한 기업의 70~90%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 증가, 경영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 베트남 Le Van Thanh 부총리, 국가전력개발위원회 담당

정부는 Le Van Thanh 부총리가 국가 전력계획을 담당하고 국가전력개발위원회를 총괄하도록 지명함. 이에 따라 Le Van Thanh 부총리는 산업무역부(MoIT), 건설부, 정부 및 기업 협의회(CMSC)로 구성된 국가전력 개발위원회를 이끌며, 국가전력개발위원회는 총리가 승인한 발전 및 배전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고 전력수입, 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 LNG 수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석탄 및 LNG 수입 거래를 모니터링 할 예정임.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총 발전용량은 태양광 16.5GW(전체 용량의 24%)와 풍력 0.6GW를 포함해 약 69.3GW 이며, PDP 8 초안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열 발전 용량을 18.6GW, 풍력 발전 용량을 18GW로 늘릴 계획임.

[Hanoi Times, 8. 18]

## ▶ 비나밀크, 델몬트와 합작투자하여 필리핀 진출

베트남의 국영 유제품 기업인 비나밀크는 필리핀의 델몬트와 합작투자를 발표함. 1단계 총 투자자본은 600만 달러로 비나밀크와 델몬트에서 각각 50% 투자함. 비나밀크는 비나밀크-델몬트 합작회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비나밀크의 유제품을 수출하여 오는 9월부터 필리핀에서 판매 및 유통할 계획임. 비나밀크-델몬트 합작회사는 필리핀 수출 및 유통을 위한 비나밀크 제품을 지난 7월말 첫 수출한 바 있음. 첫해 예상수익은 약 880만 달러, 중기 복합 성장잠재력은 연간 약 50%임.

[Nhandan, 8. 18]

## ▶ 베트남, 2025년까지 디지털경제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 목표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의 GDP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현재 디지털 경제가 베트남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임. Alphabet Inc., Temasek Holdings Pte 및 Bain & Co.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온라인 부문에 약 19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디지털경제는 '20년부터 '25년까지 연간 약 30%의 성장률을 보이며 5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함.

[VN Express, 8. 15]

## ▶ 2021 아세안 지역 디지털 판매 이벤트 300개 이상 기업 참여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1년 ASEAN 온라인 판매의 날 공식 웹사이트인 [www.onlineasean.com](http://www.onlineasean.com)에 최대 9,300명이 등록함. 아세안 10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 디지털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임. 구매자 비율은 필리핀이 50.17%로 보고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음. 주최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디지털 상거래의 붐이 일어났으며, 이는 빠르게 지역 상거래 및 무역의 핵심 부분이 되고 있다고 전함.

[Vietnam News, 8. 15]



### ▶ 베트남, 라면 소비 세계 3위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에 따르면 인스턴트 라면 소비의 80% 이상이 아시아 국가임. 중국은 2020년 한해 인스턴트 라면을 463억 5000개 소비하여 세계1위 라면 소비국으로 등극했으며 2위는 인도네시아(126억 4000만개), 3위는 베트남(70억 3000만개)이 뒤를 이음.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라면 기업인 Hao Hao는 78.7%의 점유율을 보이며 베트남 도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용소비재(FMCG) 브랜드가 됨. 마산그룹의 Omachi는 베트남 농촌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용소비재 브랜드로 소비자 접점지수(CRP) 성장률이 39.3%를 기록함. 2021년 8월 현재 베트남에는 50개 이상의 라면 생산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는 Acecook Vietnam, Masan 및 Asia Food 소유임. 한국의 라면 제조사인 농심과 오뚜기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8. 15]

### ▶ 코로나19 예방백신 ARCT-154 임상 1상 수행

하노이 의학대학교는 8월 15일 코로나19 예방백신 ARCT-154 임상 1상에 착수함. 동 백신은 베트남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세 번째 베트남산 백신으로 미국 Acrturus Therapeutics사의 mRNA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며 빈그룹의 자회사인 Vin Bio Care사가 기술을 이전받아 Hoa Lac 하이테크구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Thanh Nien, 8. 15]

### ▶ Petrolimex, 각종 석유제품 소매가 인하 적용

베트남의 국영 석유그룹인 Petrolimex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각종 석유제품의 소매가를 인하하기로 함. 구체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중인 23개 지방성·시 내 Petrolimex 주유소의 각종 석유제품 소매가를 리터당 5백동씩 인하하기로 함.

[Hanoi Moi, 8. 13]

### ▶ 올 7개월간 베트남 농림수산물분야 무역수지 흑자 39억 달러 기록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의 농림수산물분야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286억 달러, 수입규모는 247억 달러로, 3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세부적으로 지난 7개월간 농림수산물분야 수출액 중,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122억 달러, 임산물 54% 증가한 102억 달러, 해산물은 12% 증가한 49억 달러, 축산물은 16% 증가한 2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고무, 목재가구 및 수산물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은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큰 성장을 보임. 또한 통계청 7월 사회경제적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림어업 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억 9천만 톤을 기록함.

[Nhandan, 8. 11]



## ▶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 호치민까지 배송비 3~4배 인상

호치민 시내에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Kontum성에 15kg 상당의 식료품 한 상자를 배송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동(약 2,500원)이면 가능했으나 지금은 최소 20만동(약 1만원)으로 배송비가 약 4배 증가함. 반대로 Kontum성에서 호치민시로 15kg 상당의 식료품 상자를 배송하는 경우, 기존에는 15만동(약 7,250원)이었으나 지금은 35만동(약 1만 7천원)으로 3배 증가함. 개인물품 및 식료품 배송 뿐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야채 및 해산물 등을 받아 판매하는 도매상 및 소매상 역시 식료품 배송비가 크게 증가하여 상품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중부 고원지방에서 호치민시까지 1톤의 고구마를 배송하는 비용은 기존 20만동(약 1만원)에서 현재 80만동(약 4만원)으로 약 4배 상승함. 화물차 배송시 기존에는 Kontum성에서 호치민시까지 10-12시간이 소요 되었으나 시/성 경계에 위치한 검문소 대기 및 통과시간, 코로나19 쿼테스트 대기시간 등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두배인 18-20시간이 소요 된다고 알려짐. 이와같은 이유로 호치민시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의 가격은 최소 2-3배 상승함.

[VN Express, 8. 10]

## ▶ 베트남 재무부, 정부에 기업 대상 지원책 제안

베트남 재무부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 기업 대상 지원책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기업 및 단체 대상 2021년 납부세액의 30% 감면(2020년과 동일한 지원책), 모든 분야·업종·지역 내 영세사업자 대상 2021년 하반기 납부세액의 50% 감면, 일부 서비스 분야 종사 기업 및 단체 대상 부가세 30%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2021년 토지 사용료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Laodong, 8. 4]

## ▶ 베트남, 물류성과지수(LPI) 160개국 중 39위...아세안서 3위 기록

산업무역부는 지난 금요일 개최된 워크숍에서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LPI)가 전세계 160개국 중 39위, 아세안(ASEAN)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알림. 또한, 베트남은 현재 14-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흥물류시장 중 하나라며, 물류기업 수 증가, 물류 서비스 개선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임. 베트남의 물류 부문은 2025년까지 15-20%의 성장과 함께 GDP의 5-6%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Vietnamnet, 8. 2]

## ▶ IHS Markit : 베트남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5.1

IHS Markit은 베트남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월 44.1에서 1포인트 상승한 45.1이라고 발표함.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부양을, 50 이하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지표임. 올 7월 ASEAN의 PMI 지수 평균은 44.6으로서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을 의미함. IHS Markit은 베트남의 코로나19 4차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조업 감소 및 중단이 지속되면서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는 당분간 불투명 할 것이라고 분석함.

[IHS Markit, 8. 2]



## (입찰정보)

##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 ☐ Nam Cuong 국제병원 건설투자
- ☐ Ca Na LNG Power Center – Phase 1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명 : PMU7 (MOT)</li><li>○ 연락처 : +84-28-3804-0735</li></ul>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위치 : Khanh Hoa성</li><li>○ 규모 : 약 561 백만 달러</li><li>○ 프로젝트 재원 : PPP (BOT)</li><li>○ 프로젝트 단계 : Pre-F/S MOT 제출 완료, 투자자 선정 '22년 예정</li><li>○ 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간 : Co Ma Tunnel(Van Ninh) ~ 27C번 국도(Dien Khanh)</li><li>- 규격 : 길이 83km, 4차선, 설계속도 80~120km, roadbed 17m</li></ul></li></ul> |

- ☐ Nam Cuong 국제병원 건설투자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명 : Nam Cuong Hanoi Group</li><li>○ 연락처 : +84-24-6325-1888</li></ul>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위치 : Hanoi</li><li>○ 규모 : 약 52 백만 달러</li><li>○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60%), 상용대출(40%)</li><li>○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선정 중</li><li>○ 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파트 및 쇼핑 콤플렉스 내 국제병원 설립</li><li>- Land Area 3ha, 최대 15층 및 500개 병동</li><li>- 줄기세포 분야 관련 기업과 공동 투자·설립 희망</li></ul></li></ul> |



## (입찰정보)

## □ Ca Na LNG Power Center – Phase 1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명 : Ninh Thuan Department of Investment &amp; Planning</li><li>○ 연락처 : +84-259-822-683</li></ul>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위치 : Ninh Thuan성 Thuan Nam구</li><li>○ 규모 : 약 2,500 백만 달러</li><li>○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15% 이상), 상용대출</li><li>○ 프로젝트 단계 : Pre-F/S 및 투자자 선정 진행 중</li><li>○ 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Land Area : 총 83 ha</li><li>- Plant : Capacity 1,500 MW</li><li>- LNG Storage(port) : 4 tanks(180,000m<sup>3</sup>/ea) x 1.2 mil ton/year</li><li>- COD : 2025년 예정</li></ul></li></ul> |



##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 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베트남 정부의 최근 자동차 산업 개발 전략 및 방향은 결정문 Decision 1168/QD-TT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련 시행 정책은 Decision 229/QD-TTg에 명기돼 있다. 전자는 2035년까지의 비전을 고려해 승인된 10개년 개발전략 결정문으로 2025년에 효력이 종결될 예정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베트남에서 차량 생산·조립·수입 사업은 외국인도 투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020년 베트남 투자법(Law 61/2020/QH14)이 2021년 1월 1일부 발효됐는데, 이에 근거해 현지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단독투자 가능한 분야다. 다만, △차량 보증 및 점검 작업 △차량 생산·조립·수입 △차량 검수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외국인 단독 투자법인이든 합작기업이든 베트남 현지 투자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관련 조건부 사업 요건은 시행령 Decree 116/2017/ND-CP에 안내돼 있다.

\*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 국방 및 국가보안, 사회 질서, 윤리, 공공 보건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조건부 사업 목록 >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CBU, Complete Built-Up) 수입 관세를 높이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버스, 미니버스, 밴, 세단, SUV 차량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MFN)은 평균 70%다. 대신 앰불런스나 공항 버스, 영구차, 호송 차량 등 특수 목적의 차량은 이보다 낮은 5~20%로 MFN이 형성돼 있다.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해도 완성차 수입 세율이 높는데, 다만 아세안 무역물품협정(ATIGA, 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은 양허 일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 수입 차량 일부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베트남으로 차량을 수출할 시 차량 유형 인증서(VTA, Vehicle Type Approval)와 배출가스·품질·기술안전 검사가 요구된다. 2020년 시행령 Decree 17/2020/ND-CP(발효일: 2020.3.22.)와 시행규칙 Circular 05/2020/TT-BGTVT(발효일: 2020.4.15.)를 통해 관련 규칙이 수정·보완됐다. 현재는 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VTA를 제출하는 대신 베트남에서 바로 해당 차량 모델을 검수 및 테스트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VTA 검사 결과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한번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동일한 차량 모델에 대해 3년 동안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 차량보다 수입 차량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해 현지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고안했다. 한 예로, 현지 정부는 베트남 내 ‘차량 제조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용 부품을 수입할 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차량 원부자재 관련 기업’에도 2020 ~ 2024년 동안 동일 정책을 허가했다. 즉,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관련 원부자재를(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 수입할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0%로 적용 가능하다.

참고로,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복돋우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제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등록비를 50% 감면하고 특별소비세 납기일을 연장하는 등 단기 지원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재 현지 정부 산하기관들은 장기 세금 및 신용 지원책을 연구 중이다.

## 주요 기업 현황

2018년 기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포함해 현지 자동차 제조업계에 속한 기업은 550여개다. 이 가운데 ‘자동차 조립 및 제조’ 기업은 약 40개로 추산된다. (자료: 2020년 11월 베트남 통계청) 한편, 베트남 자동차 제조 업계의 등록 투자 규모로만 본다면 현지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자동차 수는 68만대에 이르나 실제 생산량은 30만대가 채 되지 않는다.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추이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생산량(천 대) | 192.8 | 254.9 | 240.9 | 267.1 | 286.6 | 249.0 |
| 증감률(%)   |       | +32.2 | -5.5  | +10.9 | +7.3  | -13.1 |

자료: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2016 ~ 2020년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량은 연평균 6.3%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참고로, 2017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2018년 발효되는 아세안무역물품협정(ATIGA)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 양허 일정을 기대하며 생산을 조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체결한 ATIGA 협약 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완성차량을 베트남으로 수입할 시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기업 일부는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기생산한 자사 브랜드 자동차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현지 재고와 생산 추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생산량 감소는 팬데믹 장기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2020년 상반기 현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과 동시에 내수 시장에도 여파에 따라 많은 자동차 제조기업(Toyota, Honda, Ford, Mercedes-Benz, Hyundai-Thanh Cong 등)이 생산 일정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           | <br>THACO<br>TRUONG HAI AUTO                    | <br>HYUNDAI<br>THANH CONG | <br>TOYOTA | <br>Ford | <br>MITSUBISHI<br>MOTORS | <br>HONDA |
|-----------|----------------------------------------------------------------------------------------------------------------------------------|------------------------------------------------------------------------------------------------------------|---------------------------------------------------------------------------------------------|--------------------------------------------------------------------------------------------|-------------------------------------------------------------------------------------------------------------|----------------------------------------------------------------------------------------------|
| 사업 분야     | 차량 제조 및 조립, 수입 및 유통, 차량 및 관련 부품 수출                                                                                               | 차량 조립 (Hyundai Thanh Cong 사), 수입 및 유통                                                                      | 차량 조립, 수입, 유통, 차량 부품 수출                                                                     | 차량 조립, 수입, 유통, 수출                                                                          | 차량 조립, 수입, 유통                                                                                               | 오토바이 제조, 승용차 조립, 차량 수입 및 유통, 오토바이 수출                                                         |
| 생산 차종     | 9인승 이하 승용차 (세단, 해치백, SUV, MPV, 크로스오버), 10인승 이상 자동차(미니버스, 버스, 코치형 자동차, 슬리핑 버스), 상품 운송용 차량(트럭, 트레일러 등), 특수 차량(덤프트럭, 크레인트럭), 자동차 부품 | 9인승 이하 차량 (세단, 해치백, SUV, MPV, 엠볼런스). 10인승 이상 차량(미니버스, 코치형 자동차), 물류 차량(트럭, 트랙터 등), 특수 차량(콘크리트 차량)           | 9인승 이하 차량 (세단, 해치백, SUV, MPV), 자동차 부품                                                       | - 9인승 이하 차량(세단, 해치백, SUV MPV),<br>- 10인승 이상 자동차(미니버스)                                      | 9인승 이하 차량 (크로스오버, MPV)                                                                                      | 오토바이, 9인승 이하 차량 (세단, 해치백, SUV, MPV)                                                          |
| 생산 현황     | - CKD 계약 생산: Kia, Mazda, Peugeot<br>- 버스, 코치형 자동차(자체 브랜드)<br>- 트럭(자체 브랜드, Fuso, Kia, Foton 조립차량)                                 | 현지 조립 트럭, 트랙터, 승용차 (Grand i10, Accent, Tuscan 등), 미니버스 및 코치형 차량(New Universe, New County, Solati)          | Camry, Vios, Innova, Fortuner<br>현지 조립                                                      | 현지 반조립생산(CKD) 세단, 해치백, SUV (Fiesta, Focus, EcoSport), 미니버스 (transit)                       | 현지 반조립생산(CKD) 크로스오버, MPV 차량 모델 (Outlander, Xpander)                                                         | 현지 반조립생산(CKD) 세단 및 SUV(승용차 모델: City, CR-V)                                                   |
| 연간 생산량    | - 2018년: 83,416대,<br>- 2019년: 79,565대                                                                                            | 생산 가능 기준: 최근 연간 7만 대, 제2 공장 연간 10만 대 목표 (2020년 9월 착공)                                                      | - 2018년: 52,662대,<br>- 2019년: 50,114대,<br>- 2020년: 43,243대                                  | 생산 가능 기준 연간 14,000대 (9인승 이하), 4만 대까지 생산량 증대 계획                                             | 생산 가능 기준: 연간 1만대, 실제 생산량: 연간 5,000대 미만                                                                      | 생산 가능 기준: 연간 23,000대(9인승 이하 차량)                                                              |
| 현지 부품 조달률 | 9인승 이하 차량 평균 25%(Cerato, Soluto, Grand Carnival과 같은 Kia 일부 모델은 40% 이상)<br>버스: 60%,<br>트럭: 40%                                    | -                                                                                                          | 19~37% (Innova: 37%)                                                                        | -                                                                                          | -                                                                                                           | -                                                                                            |
| 생산 시설 소재지 | 중부 꽝남성(주요 생산지), 남부 동나이성                                                                                                          | 북부 닌빈성                                                                                                     | 북부 빈푹성                                                                                      | 북부 하이즈엉성                                                                                   | 남부 빈즈엉성                                                                                                     | 북부 빈푹성                                                                                       |



## 주요 이슈

### 1) 베트남 자동차 브랜드 VinFast, 전기버스 제조 성공 이어 친환경 교통 사업 준비

베트남 대기업 VinGroup(빈그룹)의 자동차 제조 자회사 VinFast(빈패스트)는 2020년 현지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전기버스를 생산해 2020년 10월 시운전을 완료했다. (VinFast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9인승 이하 승용차 자체 브랜드 론칭에 성공한 현지 차량 제조기업) 앞서 2019년 VinGroup은 VinBus라는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수도 하노이, 남부 대표 도시 호찌민시, 유명 관광지 푸꾸옥 섬에서 친환경 교통 서비스 사업 계획을 알린바 있다.

### 2) 전기버스 다음은 전기 SUV

VinFast는 2021년 말 베트남 시장에, 2022년 2분기 세계 시장에 자체 전기 SUV 차량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이미 2021년 초 전기 자율주행 SUV 모델의 3개 프로토타입[VF31(C segment), VF32(D segment), VF33(E segment)]을 제작한바 있다. 3개 프로토타입 모두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안면인식, 내부 온도 자동조절 등과 같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다. VinFast는 2021년 3월 24일부터 전기 자동차 모델 VF e34(6억 9000만 동, 약 3만 달러)의 베트남 내 사전 계약을 시작했으며 관련 배송은 동년 11월로 예상된다.

### 3) CPTPP와 EVFTA

베트남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19년 1월 14일,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2020년 8월 1일부 발효됐다. 이 두 다자간 무역협정은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품목에 관세율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상은 자동차가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실제 관세율 혜택을 보기까지 CPTPP는 13년, EVFTA는 10년가량 관세율 인하 양허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

## 나. 산업 수급 현황

### 내수

베트남 내 차량 판매량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특히 팬데믹 전 2019년 현지 자동차 판매량은 32만 대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다만, 상기 언급된 것과 같이 2019년은 ATIGA 발효 여파와 VTA 및 품질 검사 요건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판매 차량 수 가운데 현지 생산된 차량의 비중은 2018년 74.7%에서 2019년 59%로 감소했다.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판매 시장 자체가 축소됐으나, 동기간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등록비 감면 정책으로 현지 생산 자동차 판매 실적은 팬데믹 상황 대비 크게 후퇴되지 않았다.



## 수출입

베트남의 주요 완성차(CBU) 수입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이며, ATIGA 발효 이래 두 국가의 수입량은 전보다 더욱 확대된 양상이다. 2019년 베트남의 대태국 수입 완성차는 7만 4120대(전년 대비 33% 증가), 인도네시아는 4만 6563대(160%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 두 통계를 합하면 당년 베트남의 전체 수입 완성차 중 87%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 완성차 모델은 9인승 이하의 승용차, 트럭이다. 2019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전체 수입차 가운데 두 차량 모델의 비중은 2018년 96%, 2019년 95%, 2020년 93%를 차지했다

## 다. 진출 전략

### SWOT 분석

| Strength                                                                                                                                                                                                                                                                                                                                                                        | Weaknes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경쟁력 있음</li> <li>- 현지 정부의 정책 하, 북부, 중부, 남부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 관련 산업시설 개발 중</li> <li>- 베트남 자립 브랜드(VinFast) 승용차·전기자동차 생산 성공하며 현지 고유의 자동차 제조업 성장성 입증 → 관련 원부자재 산업에 투자 유도</li> <li>- ASEAN 회원국으로서 ATIGA의 관세 혜택 이용 가능</li> <li>- 현지 정부의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 관심 높아, 내부적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세율 혜택과 재정 지원 정책이 지속 고안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GDP(약 3000달러)를 고려했을 때, 현재 승용차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는 일부</li> <li>- 베트남의 주요 교통 수단은 오토바이</li> <li>- 개발 단계에 있는 현지 도로 상황</li> <li>- 베트남 기반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현지 자동차 제조 산업의 수요를 메우기에는 부족함.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률이 낮아, 베트남 생산 차량의 가격이 높아짐</li> <li>- 주변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등)와 비교해 자동차 제조 산업 규모가 작음</li> <li>- 아직은 작은 시장 규모만큼 외국계 자동차 기업의 투자도 제한적</li> </ul> |
| Opportunities                                                                                                                                                                                                                                                                                                                                                                   | Threat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취약해 개인 차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li> <li>- 승용차 소유 인구의 비율이 낮은 한편 소비자의 경제력이 제고 중이므로 향후 개인차 소비 증가 기대</li> <li>- 제조 및 물류 산업 성장에 따라 상품 운송에 유용한 소형 및 중형 화물차 수요 성장</li> <li>- 현지 정부의 버스 시설 확충 계획, 대도시 내 오토바이 제한 계획, 성장하는 관광업 등을 배경으로 버스 소비 증대</li> <li>- ATIGA 이용한 아세안 수출 확대 가능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 무역협정(ATIGA, CPTPP, EVFTA) 발효 → 수입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 장벽 낮아져, 베트남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 예정</li> <li>-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산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종종 수정돼, 장기간 사업 전략 구축 시 변동 사항이 발생하기도 함.</li> </ul>                                                                                                                                                      |

## 유망 분야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은 현지 정부의 '자동차 세율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지 시행령 Decree 111/2015/ND-CP의 부록 4(Appendix IV) 자동차 부품 목록에 포함된다면, 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는 0%의 수입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김영호 소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말할 때 흔히 9988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업체수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에 발표한 기본통계에 따르면 총 기업수 664만개 중 중소기업이 99.9%이며, 총 근로자 26백만명 중 83.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민총생산과 부가가치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1978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해 1979년 1월 설립되어 당시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한 생산기술, 생산설비, 경영기법 등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근대화 시기를 넘어서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자산 약 19조) 운용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기존 제조 산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AI, 바이오, ICT 등 중소기업의 신성장 분야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32개 지역본지부가 각 지역의 기업현장에서 함께하며 민간 금융권이 기피하는 중소·벤처·창업·소기업에게 정책융자를 지원해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진출 및 수출마케팅, 기업진단, 컨설팅 등 기술지원, 청년CEO 및 중소기업 재직자 인력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금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과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해외에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하면,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도 해외 마케팅 거점을 비교적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어 초기 위험부담을 낮추고 비용절감을 통해 현지진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KOTRA와 공동으로 세계 주요 12개국 20개소에 설치되어 261개 독립실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호치민(2004년~)과 하노이(2014년~)에 각각 수출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처럼,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 시장에 갓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조기 정착해 수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 생기는 초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입주기간동안 11-20㎡ 내외의 사무공간을 임차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노이 수출BI, 1년차 月 100달러 내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근무자의 현지 정착 지원,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제공, 바이어 발굴 매칭, 현지시장 정보 제공, 마케팅/법률/회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자문·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사무공간



수출BI 전경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의 경우, 현재 15개 독립실에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베트남 진출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간을 마치고 졸업한 기업의 약 57%가 베트남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공장 설립 및 해외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입주/졸업기업 법인장님들로 부터 수출 초기에 현지 사무실을 구하는 문제부터 난관이었지만,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해 사무공간, 인터넷/사무집기는 물론 현지직원 채용, 근무자의 현지 정착, 현지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마케팅/법률 조언 등으로 초기 준비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되어 해외영업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었고, 진출 초기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시설에 입주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 해외바이어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지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기업의 단기 해외출장을 위한 개방형 공유오피스 및 현지정보 제공, 코트라와 협업체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기업과 교류협력 및 경영혁신을 위한 APEC 컨설팅 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온라인 매칭상담회

###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계획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중심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였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중소기업 역시 해외 진출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 제약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Pre-BI 지원 프로그램 및 현지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현지마케팅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기업과 현지전문가를 매칭해 온라인 코칭 지원하는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한국 모기업이 현지시장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자 해외 판로 확대, 수출품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생산비용, 시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 정책자금 필요로 할 경우, 평가 우대제도를 신설해 중진공 32개 지역본부부가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원 협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팀코리아 참여기관들과의 협업 연계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노이에 진출한 우리 팀코리아 공공기관들과 교류 협업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진공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베트남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김동배 공사참사관 이임인터뷰

**이제 곧 베트남을 떠나신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쳐 가시는데 소회가 어떠하신지요?**

당초 예정했던 3년 임기를 못 채우고 귀국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이 잔뜩 남아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진전도 못 이루고 떠나게 되어 너무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2년 반 동안의 베트남 임기는 베트남 인사들이 축하 마지막에 흔히 하는 네 단어(행운, 행복, 건강, 성공)로 축약할 수 있겠네요. 베트남 근무 기회를 받은 것 자체가 큰 **행운**이며, 진출한국기업과 동포사회 그리고 대사관 직원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19로 반강제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고, 자연인으로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덕분에 훈장을 받고 승진하는 등 **성공**하였습니다.

베트남에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지원할 것 이구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을 보다 더 잘 알게 된 것은 외교관으로서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근무하셨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베트남은 어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베트남은 해외근무국(선진국 2개국, 개도국 3개국) 중 다섯 번째 국가인데 가장 깊은 인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 근무가 훨씬 역동적이고 흥미로운데 그 점에서도 베트남은 top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경험해 본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정서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느낌이구요. 제 가족들도 과거 근무해 본 미얀마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한국의 국가 위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베트남은 단연 돋보이는 나라입니다. 베트남내 한국의 위상은 무엇보다 9,000여개의 진출기업과 재외국민들의 힘이라고 절감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출기업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는 계속해서 대사관의 최우선순위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베트남은 독특한 시스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국회, 정부, 사법부간 관계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헌법을 가급적 일독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베트남식의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와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향후 30년내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45년 1인당 GDP 12,000불의 고소득선진국 진입이 목표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해는 1986년 도이머이 정책 도입시부터 59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수/인구구조, 부존자원, 대외환경 등의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한국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참님께서도 대사관내에서 경제팀의 팀장을 맡으셔서 여러 비즈니스 현장에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나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2020년 중반에 진출한국기업들 관련 매우 중요하고 큰 규모의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 것이 가장 부듯합니다. 작년 6월 30일 대사관이 베트남 외교부와 공동으로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Meet Korea 행사에 1,000여명이 운집(이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측 인사들)하였는데요. 베트남의 50여개 지방정부의 당서기/인민위원장들이 총출동하여 진출한국기업들과 지방성정부 고위급인사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애로사항/협력사업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 큰 행사였지요.

또한, 작년 7월 17일에 개최한 총리실 장관과 진출기업간 대화에 이어, 7월 29일에는 총리와 진출기업간 대화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 고위급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진출외국기업들과 베트남 정부간 연례 VBF(Vietnam Business Forum) 행사도 있지만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고위급과의 대화는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베트남 중앙/지방정부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진출한국기업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 하노이 인근 성에 위치한 다양한 업종의 진출한국기업들의 생산라인을 다수 둘러보고 생산현장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도 깊은 인상에 남습니다.

**공참님께서 일처리를 하실 때 ‘정리’를 잘 하신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빨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또 각 주체의 업무분장을 딱부러지게 정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과찬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니어 사무관 시절에 가장 싫었던 것이 과장/국장 등 간부들이 회의 주재할 때 시간 질질 끌고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내고, 지시도 애매모호하게 내리는 것(‘creative ambiguity’를 어설프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과 직원들과 회의시 30분을 넘긴 적이 없고, 지금 대사관 경제팀회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는 “The shorter the better”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과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취합된 전체 내용을 중간관리자 본인이 잘 종합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안의 초기 단계에서 업무처리 방향을 빨리 교통정리해 주어야 직원들이 헛발질 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지요.

**공참님은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 부분을 배워 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어가 너무 어려워 중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는지요?**

부임 첫해였던 2019년에는 분주한 업무로,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뒤늦게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하노이 인사대 강사님께 주2회(토, 일) 개인교습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언어공부 이외에 다른 많은 대화도 나누었는데(어려운 대화는 영어로),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주제든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공문서나 뉴스 기사를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베트남 분들과 간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은 되었으나,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저장하는 두뇌능력이 현격히 저하되는 것을 느꼈지요.

경험을 돌이켜보니 베트남어 공부는 초기부터 발음, 특히 성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알파벳의 단어라도 성조가 다르면 전혀 다른 단어가 되듯이 내 성조가 틀린다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 또한 내가 못 알아듣게 되지요. 적어도 발음은 중국어 등 다른 언어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는 한자어 기반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직관과는 다른 의미도 많아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업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쯤 코로나사태가 가라앉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또한 코로나 사태 관련한 대사관의 대응활동도 소개해 주시죠**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며 대사관 직원으로서 송구합니다. 베트남이 작년 한해는 코로나19 대응에 봉쇄중심 전략으로 성공했으나, 올해 1월말 3차 대유행, 특히 4월 27일 이후 4차 대유행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사관으로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작년 한해 보다 올해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이 최종답이며, 3월 8일 접종개시 이래 접종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8월 13일 기준 약 1,800만 도스 도입, 약 1,300만 도스 접종). 베트남 정부는 백신접종계획에 관한 7월 8일자 보건부 결정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 2022년 1분기말까지 70% 이상 접종 완료(집단면역 형성)를 목표로 접종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문서로 나온 접종계획 내용과 성/시, 구/현/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에서의 백신접종 신청 접수/시행과는 괴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외국인 차별없이 원만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2월말 베트남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대사관은 진출한국기업들과 우리 국민 지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사님과 전 직원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2일 외국인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래 **한국인의 특별입국 성사를 위해 노력**하여公安부 통계상 2020년말까지 23,000여명, 2021년 6월 말까지 18,000여명 등 총 41,000여명의 입국을 성사시켰습니다. 작년 특별입국 시스템 마련 초기에 베트남 중앙/지방정부와 교섭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같이 고생해 준 코트라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후 대한상의, 코참, 한인회, 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 등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특별입국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국 후 격리기간 문제**도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특히 베트남 정부가 올해 1월 말 시설격리 기간 연장(14일→21일) 조치를 취하여 우리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이 협조해서 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연장취소를 이끌어 냈으나, 5월 초에 또다시 연장조치(시설 21일 + 자가 7일)를 취하여 이번에는 일본대사관 이외 다른 여러 대사관과도 협조해서 연장취소를 요청하였고 결국 7월 14일 보건부 지침을 통해 시설 14일로 환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8월 4일 보건부 지침을 통해 백신접종완료자/감염후완치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7일 + 자가 모니터링 7일 실시를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며 외교부가 8월 6일 외국 백신접종증명서 등 인정 문제 관련 안내문 발행 및 8월 10일 베트남 주재 외교단에도 이를 공식통보한데 이어, 하노이시/박닌성/푸토성 등 지방성이 이행 공문을 발행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좋은 신호입니다.

4차 대유행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진출한국기업들의 생산/경영활동상 전대미문의 애로사항**(원부자재/완제품 물류이동 제한, 과도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직원들 출퇴근 제한 등) 발생입니다. 사안 발생시마다 대사관 공한 발송하여 애로 해소를 촉구하고, 대사님이 직접 박장성, 박닌성, 타이응웬성, 빈푹성 등 해당 지방성들과 중앙정부 부처를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하여 적어도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백신접종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3월 8일 백신접종 개시 이래 대사관은 베트남 보건부, 외교부 등에 우리 국민 접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6월 하순 한국 외교장관님 방베시 베트남 외교장관님과 회담 및 총리님/국가주석님과 면담에서 우리 국민 접종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님과 대사님간의 접견(7.15.)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 애로 지속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대사관과 협력해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외에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인허가, 세제, 노무, 미수금, 개정법령의 소급적용, 정책 예측가능성 부족,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정부 정책 시행 후 취소 사례 등)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 등 민간부문과 대사관이 합심하여 베트남 정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한-베트남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합니다. 앞으로 혹시 양국간의 어떤 협력아젠다나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있는 현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두 추진 예정입니다.

대사님과 팜 밍 쩡(Pham Minh Chinh) 총리님간 면담(5.27.)시 총리-주요진출한국기업간 대화를 6개월 마다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사님-쩐 반 선(Tran Van Son) 총리실장관님 면담(6.17.)시에도 총리실-진출기업간 대화 개최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Meet Korea행사는 Thanh Hoa성에서 개최기로 베트남 외교부 및 Thanh Hoa성과 합의하였으며, 하노이시-진출한국기업간 대화 추진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 계기 관계격상 및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협력사업 다수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미래지향적 협력 : △4차 산업혁명 대응(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과학기술, ICT), △에너지/인프라, △고용/노동, △농업/농촌개발, △보건/의료, △기후/환경, △금융 등 경제분야





Meet Korea 행사 (2020.6.30)



총리실-진출기업간 대화 행사 (2020.7.17)

## 기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의 일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베 양국간에는 협력의 여건이 매우 좋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는 이미 interdependent(상호의존적인), inseparable(불가분의), irreversible(불가역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는 상호취약성의 증가가 아니라 상호보완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분야 또는 대립적 사안이 거의 없으며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입니다. 9,000여개 기업진출과 인적교류(2019년 430만명의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죠. 무엇보다 국민들간 문화적/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구요.

“천시 < 지리 < 인화”라고 하는데, 현재 한-베 관계는 코로나19라는 천시는 안 좋으나 인화와 지리가 이를 압도 가능합니다. 이중 인화가 제일인데 양국 국민간 보다 깊은 상호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상대국가의 현실적 어려움/한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 국민간 정서적 교감에 박항서 감독님 역할이 매우 컸으나, 이제는 베트남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박 감독님 역할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실망과 좌절을 느낄 때도 분명 있지만, 그것이 베트남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에서 베트남은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이라는 생산기지과 시장을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Tôi rất yêu Việt Nam~. <끝>



## 우리 진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트라 다낭무역관 김운태 관장 부임인터뷰



### 김운태 관장님 반갑습니다. 베트남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우선, 베트남 비즈니스뉴스를 통해 지면으로나마 베트남 진출기업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었고, 부임지인 다낭과의 직항편이 끊겨 있다보니, 이 글을 쓰는 현재 저는 아직 다낭에 도착하지 못한 채, 경유지인 호찌민의 지정시설에서 격리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첫걸음을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하고 답답한 격리시설에서 시작하다보니, 베트남에 진출하신 우리기업인과 교민들께서 코로나19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조금이나마 미리 체감하게 된 것 같고, 우리 진출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타이베이, 상하이, 베이징 등 중화권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非중국어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였는데, 삼성전자 핸드폰사업부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정부도 중국에 편중된 교역구조 개선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동남아와 경제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때마침, 2019년 본사에서 특별전시회 주관 부서를 담당하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연계 경제행사’ 등 신남방 연계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포스트 차이나’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이번에 다낭무역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 &lt;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연계 경제행사(2019)&gt;



베트남은 한자문화권,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등 중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특수하고 차별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파악하고 현지 정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개척 및 투자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낭무역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낭무역관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의 중부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개설을 결정하고 2019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본사 파견직원 2명, 현지직원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무역관으로 마케팅지원사업, 시장정보조사, 투자진출기업 지원, 프로젝트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설 첫해인

2019년에는 한·베 투자기술협력 포럼 및 상담회, 다수의 무역사절단 지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을 펼쳤는데,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낭 및 중부지역에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중부지역 진출 기업들의 동향도 궁금합니다.**

8월초 기준, 다낭의 일일 확진자수는 90명 정도이고, 꽝남·꽝응아이·트어티엔후에 등 중부지역 주요 성들도 일일 확진자수가 10명 내외로, 남부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가 비교적 통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코로나19로 타지역보다도 훨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다낭의 경우 작년에 -9.77%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성·시중 두번째로 낮은 성장률로, 1997년 다낭시가 중앙 직할시로 승격 된 이후 첫 역성장이라 합니다.

중부지역 진출기업들도 코로나19로 본사 직원 및 현지 기술인력의 출입국, 물류, 대금회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중부지역 지방정부에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봉쇄 등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작년 3월 이후 한국과 다낭간 직항편 전면중단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현지 교민들의 일상과 진출기업의 비즈니스에 열거하기 힘들만큼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낭은 관광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1년 이상 해외 관광객 유입이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관광 업계에 종사하셨던 많은 분들이 다낭을 떠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174만명의 한국인이 다낭을 찾아, 전체 베트남 방문 한국인의 40% 이상이 다낭에 집중되었습니다. 성수기에는 한국과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비행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하루 30편 이상의 직항편이 한국과 다낭을 오가 ‘경기도 다낭시’라 불릴 만큼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주요 도시들과 다낭간 모든 직항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5,000여명에 달하던 다낭 상주 한국인이 10분의 1까지 급감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다낭 무역관은 베트남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무역관인데요. 앞으로 베트남 중부지역에 어떠한 사업 기회가 있을까요?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주로 호찌민 인근의 베트남 남부 및 하노이 일대의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8,000여개에 이르는 베트남 투자법인들이 대부분 남부와 북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중부지역은 아직까지는 남·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베트남정부의 균형발전 및 중부 육성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제조업 및 첨단 서비스업(IT, 물류, 금융) 등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되고,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하는 등 중부지역과 남·북부간의 격차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역은 개발 초기임에 따라, 남·북부보다 현격하게 저렴한 지가, 낮은 인건비, 풍부한 양질의 인력 등 유리한 조건도 많은 바, 새롭게 베트남에 진출하시거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대할 우리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낭시, 후에성 등 중부지역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확정으로, 향후 IT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낭의 경우 2019년에 US 3.6억 달러 규모의 교통관제 등 분야별 세부 프로젝트를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베트남 주요도시별 ICT 지수에서 다낭시가 1위를 차지했고, 후제가 2위를 차지할 만큼, 중부지방은 양호한 ICT 발전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KOICA가 2019년부터 추진한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밸리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낭무역관도 IT 프로젝트 발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 &lt;텐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gt;

**마지막으로 부임하신 포부와 혹시 재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무역관은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해외포스트로서, 한·베트남 간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과도한 對中경제의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경력을 쌓은 제가 다낭에 부임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다낭무역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진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신남방정책 성공의 상징적인 무역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



## 베트남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 개인소득세 미납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사례 甲은 베트남 H시 소재 한국투자기업이다. 베트남 진출 후 수년 간 동일한 법인장 관리 하에 있었으나, 최근 해당 법인장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베트남법인 관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베트남 내 세법, 특히 현지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세와 누락 혐의로 관할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수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 운영이 상당기간 존속되어온 관계로 문제가 커질 경우, 甲이 부담하여야 할 페널티 및 추징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甲의 신규 부임 법인장은 베트남 내 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베트남 현지 법규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질의하였다. 금번 칼럼에서는 지난번 기고문에 이어서 베트남 현지 법인 소속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미납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질의 1)** 만약 베트남 관할 세무당국에서 소득세 미납에 대한 추징이 있다면, 소득세 추징의 범위(기간 및 대상)와 예상 금액이 궁금하며, 기간을 소급하여 추징 가능 여부 및 현지근무수당과 더불어 출장비, 사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추징의 대상 여부

**(답변 1)** 甲의 소속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개인별 세무코드 등록이 된 경우,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 추징은 위반사항 적발일로부터 최대 만 2년까지 추징이 가능하며, 미납에 대한 소득세 및 지연이자 추징은 위반사항 적발일로부터 최대 만 10년까지로 시효가 제한될 수 있다. 단, 귀 해당 법인 소속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개인별 세무코드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 기한은 없으며 영구적으로 추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실무상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별 세무코드 등록이 안된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 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가 무존재하는 바, 실질적으로 추징될 과세 근거 정보가 부재하므로 베트남 과세당국에서의 추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담당 세무조사관에 따라서 누락액수의 추산이 상이할 수 있는 점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약 소득세 미납 및 지연 시 페널티 금액은 페널티 적용 기준금액에 따라서 상이하며, 페널티 요율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 징수되도록 규율되고 있다. (2013년 11월 15일자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66/2013/TT-BTC 제4조 1항, 동 조 2항, 제9조).





**(질의 2)** 베트남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한국 내에서 소득세 납부할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여부

**(답변 2)** 베트남 내 소득세 면제 대상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재외공관 소속 직원 및 외교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경우는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즉,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1)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이거나, 2)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부속공관(commercial section)의 지위로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이를 별도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甲과 같은 대다수의 베트남 현지 소재 법인은 대사관 등 외국공관 소속 직원과 같은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유념하여야 한다.

**(질의 3)**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중과세금지협정 체결 여부 및 체결이 되어 있다면, 한국인 직원의 소득세의 한국 내 납부 여부

**(답변 3)** 한국-베트남 이중과세금지협약에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경우, 1) 해당 외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해당 외국 정부의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및 2) 외국(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급여 및 보수를 외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 내에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전제로 베트남 내에서는 별도의 이중 소득세 납부가 강요되지 아니한다.

**(질의 4)** 베트남 현지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납부 가능 여부

**(답변 4)** 베트남 법인 소속으로 베트남 현지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해당 외국(한국) 정부(기관)의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및 외국(한국) 정부(기관)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급여 및 보수를 외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베트남이 아닌 한국 내에서만 소득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즉, 甲사와 같이 한국본사가 베트남 현지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의 베트남 내 개인계좌로 근무 수당 및 급여 보수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송금증빙을 보관한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개인소득세 탈루로 베트남 관할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추징 및 페널티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 규모, 기간, 내용에 따라서 추징 및 처벌의 강도가 상이할 수 있는 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법인운영 기간 중 소속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납부에 관한 의무 준수가 바람직하다. <끝>



## 판매 촉진 행사 전에 알아야 할 베트남 법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내 물건을 내가 할인한다는 데 무슨 규제가 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독점, 공정거래, 세금 문제 등 여러 법적·정책적 이유로 나라별로 규제 정도는 다르지만, 판촉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판촉 활동에 대한 규제가 무엇인지 알아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어 현재도 유효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ND-CP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구(舊)시행령 37/2006/ND-CP를 대체함]. 시행령 81은 구 시행령 37 하의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일부 규제를 약간 완화했다. 구 시행령 37과 비교하여, 시행령 81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판촉 행사의 신고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절차

판매 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이를 진행할 지역의 산업무역국(DoIT)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조항에서는 사전신고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승인 요청 절차에 가깝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관계 당국에 신고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기업의 판촉 비용과 이를 준비하는 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전국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모든 성과 시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시행령 81은 사전신고 기간을 기존 영업일 기준 7일에서 3일로, 그리고 당국의 신고 문서 검토 기간을 영업일 기준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실무 처리 시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 81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 판촉물의 총 가액이 베트남 동화 1억 동(약 490만원)이하일 경우 또는
  - (2)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기업
- 예를 들어, 9백만 동짜리 가방에 대한 판촉물이 2억 동 상당의 안마기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2억 동 짜리 안마기에 대한 판촉물이 9백만 동 상당의 가방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2. 판촉물의 가격 할인 제한

구 시행령 37에서 규정한 단가(單價)에 대한 50% 할인 한도와 총 판촉물 가치에 대한 50% 할인 한도는 일반적인 형태의 판매 촉진 행위에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현 시행령 81은 50% 할인 한도를 상황에 따라 100% 할인(무료)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무료 판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 또는 성급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행사나 베트남 설(Tết) 등 국경일에 시행하는 경우이다 (예: 9일간의 베트남 공휴일과 설 연휴 전 30일 동안은 무료 판촉을 허용).

정부의 다른 판매 행사에서도 무료 판촉이 허용되지만 산업무역부(MoIT)와 지방 산업무역국(DoIT)이 실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베트남 그랜드 세일(Vietnam Grand Sale) 정도였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구체적으로 2020년 베트남 전국, 2020년과 2021년 하노이 그랜드 세일 행사).

다음과 같은 판매촉진 행위나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 국가의 가격 안정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상품과 서비스
- 신선 제품 / 미가공 원제품
- 파산, 해산, 생산 또는 사업 지역의 변경 때문에 매각하는 상품과 서비스

## 3. 가격 할인 기간 제한

가격 할인 시 할인액과 할인 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시행령 81에서는 총 가격 할인 기간을 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 할인 기간에서 정부가 주도한 판촉 행사 기간은 제외한다.

## 4. 등록된 판촉 기간 이전에 판촉 행사를 종료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판촉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지만, 판촉 프로그램의 수정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만 판촉 프로그램의 수정이 허용된다.

시행령 81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된 판촉 기간 전에도 판촉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
- 판촉 서비스나 판촉물이 더는 없는 경우나 매진된 경우
- 추첨을 통해 판촉물을 제공한 경우, 당첨자가 발표되었고 관할 당국이 이를 확인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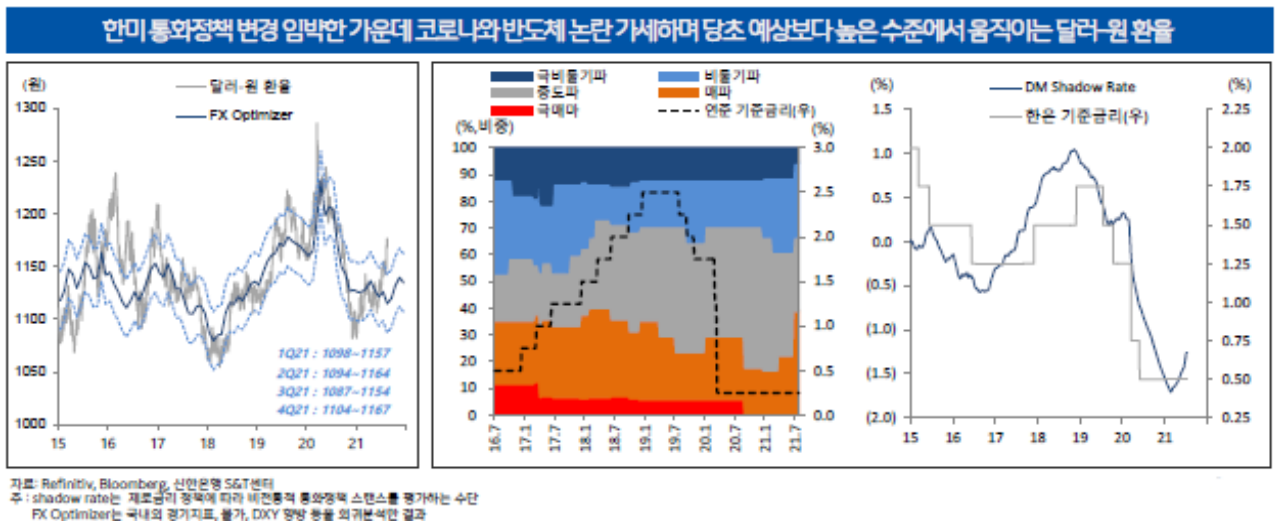
이 경우에도 회사가 판촉 행사 종료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만 판촉 행사를 종료할 수 있다. <끝>



## 8월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를 앞두고 한미 통화 정책 전망

신한은행 S&T센터

8월 잭슨홀 미팅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한미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연방준비제도(연준) 테이퍼링과 10월 이후 한은 금리인상 조항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나, 높아진 물가 등으로 중앙은행이 조급해지며 10~11월 연준 테이퍼링(자산 매입의 단계적 축소)과 8월 한은 금리인상으로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잭슨홀 미팅 및 금통위를 거치며 자산 과열 억제로 좌표 이동 신호가 나타날 경우, 통화긴축에 대한 가속화가 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정상화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및 반도체 경기 논쟁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어 원화 환율이 과민하게 반응할지 주의하여 지켜보아야 한다.



### 2. 인트로

최근 델타 변이 코로나가 아시아에 이어 글로벌 전반에 다시 확산되며 경기 및 통화정책 등에 변수로 등장하였다. 본격적 침체보다는 코로나발 사이클의 왜곡 아래 백신 접종 및 지연된 지출 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 감소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행 정책 정상화가 부상하는 가운데 8월말 연준의 잭슨홀 미팅(8/27~8/28) 및 한은 금통위(8/26) 등 빅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연준 의장)은 평균물가 목표제를 완화기조 명분으로 삼았으나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역시 코로나 변이가 변수이나 한은 역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디레버리징 부담 가중, 정부가 조장한 자산버블, 지역/산업/계층간 차별화 심화위험 노출 등의 비용도 수반되며 코로나 탈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대응이나 과잉 유동성 방출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후유증으로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가능한 단계적 정상화로 충격을 최소화 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나 재정악화, 물가상승, 국가간 경쟁 심화 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을 위시한 중앙은행 행보의 파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충격에 따라 디레버리징을 건너뛴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며 금리 상승 민감도도 커질 소지가 있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은 자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과거에도 미국 금리 인상 기에 신흥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 만큼 연준의 향방을 주시해야한다.

### 3. 연준의 출구전략 진단과 전망

당초 우려했던 지지부진한 정상화 흐름과 달리 미국 경제는 강력한 경기 부양과 백신 접종 본격화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충격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화 방출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5%대로 높아지며 인플레이 경계감이 부상하고 있다. 공급측 요인이 저하되며 2/4분기가 기술적인 정점으로 보이나 수요측 압력이 높아지며 하반기에도 4%대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준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점도표의 상향 이동이 전개됨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둘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FOMC 멤버들의 매파적 성향으로의 이탈이 늘어나며 테이퍼링이 빨라질 가능성에도 노출 되어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기 및 자산시장 사이클에 비해 크게 뒤쳐진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중 목표(Dual Mandate)를 갖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경제 성장과 달리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고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감소,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수요 저하, 재정 지원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칭 등이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 기대에 다소 못 미칠 뿐 미국 고용시장도 정상적인 수준에 점차 근접하고 있어 테이퍼링 후퇴 유인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압력을 인식한 FOMC와 금융위기 이후 3단계 출구전략을 시도했던 2013년 상황 적용시, 2023년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잭슨홀 미팅 및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사전에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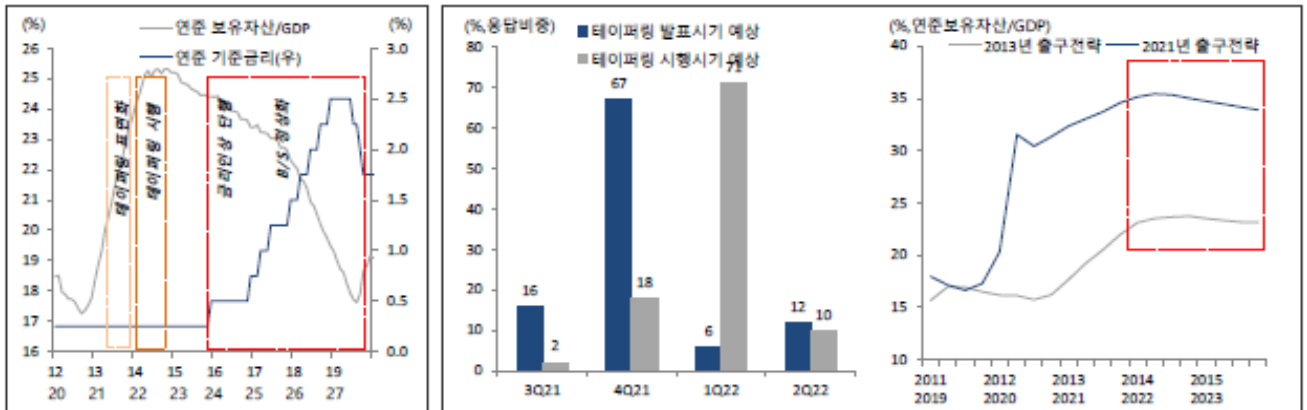
물가압력을 인식한 FOMC와 금융위기 이후 3단계 출구전략을 시도했던 2013년 상황 적용시, 2023년 금리 인상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잭슨홀 미팅 및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사전에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정정책 효과 및 물가 등에 따라 출구전략 시점이 당겨질 수 있는 등 유동적이며, 미국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실적, 시간적 제약은 있으나 정상화의 수위를 높이는 연준 감안 시 3/4분기 테이퍼링 조기 시행도 배제 할 수는 없는 분위기이다.



단, 국내한도 상향의 정치적 리스크 및 부동산 가격 상승 감안 시 모기지 매입 축소를 먼저 단행하는 2단계 시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경우 이르면 9월 FOMC에서 2단계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10~1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테이퍼링 시행 우세하나 예상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오른쪽 그림은 뉴욕 연준의 프라이마리 볼레 시메이 적용

#### 4. 한은의 금리인상 진단과 전망

지난 3월 경제전망 상향 조정 이후, 정상화 수위를 빠르게 높였던 한은은 코로나에 가로막혀 0.50%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그러나 25bp금리인상 소수의견 1명이 등장하였고, 금융불균형에 대한 위험 강조, '완화 정도의 조정' 등을 언급하는 등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었다. 금리인상 시사 시에도 완화적 수준을 강조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강조 등으로 재정정책 및 금융위와의 이견 우려를 차단하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경제 충격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낮아 코로나 확산이 점차 진정될 경우,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정책 정상화 유인은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로 미세 조정 유인은 있지만 올해 국내 경제는 4%대 성장과 2%대 물가 수준이 가능해 한은의 금리인상 압력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발 아시아의 상대적 부담이 노출된 가운데 반도체 가격 정체에 따른 수출증가율이 정점으로 성장율은 감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점진적 출구전략 시도 예상되나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금리인상에 이어 캐나다와 호주의 테이퍼링이 시행될 예정으로 해외에서 불어오는 정상화 기류에 안전하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다소 간의 지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한국과 상관성이 높은 호주, 뉴질랜드도 출구전략을 준비하며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코로나 및 피크 아웃 논쟁 등이 다소 간의 걸림돌이나 펀더멘털 및 주요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한은의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한은은 경기 경로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 억제 위한 금리인상을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자산시장 호조로 후행적 정책 대응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대선 본격화 이전에 금리인상을 단행해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끝>





## 2021 베트남 비즈니스 팁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 수록내용

법률, 노무, 금융, 세무 등 올해 베트남 비즈니스 관련 주요 정보를 현지 전문가가 직접 기고한 2021년의 주요 비즈니스 주안점을 34개의 칼럼 형태로 수록

- **(법률)**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 개정 투자법 및 개정 기업법, PPP법 시행과 의의 등
- **(노무)** 근로계약, 징계절차, 코로나19이후 노무관리, 해고사유,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 **(금융)** 코로나19이후 은행권 전망, 금융시장 동향, 증시, 외환, 외국환거래법 등
- **(세무)** 조세변경사항,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 코로나19 이후 조세동향, 세무업무절차 등
- **(기타)** FAQ, 지적재산권, 스타트업, 건설프로젝트 수행 절차 등



### 2021 베트남 비즈니스 팁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 2021 베트남의 파워엘리트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 베트남은 공산당의 나라이며 권력의 분점과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원칙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분점과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최고 권력도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분점하고 있음
  -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사결정도 민주적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 조율과 협의를 우선시하고 있음
- 제6차 공산당전당대회(1986년 12월)를 통해 베트남 경제개혁개방의 시초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 □ (전당대회 등을 통한 지도부 선출결과)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

- (4대리더) 前지도부의 서기장 연임 및 국가주석 승계로 급격한 변화는 없음

| 성명                          | 기존 보직      | 신규 보직 |
|-----------------------------|------------|-------|
| 응웬 푸 쯙 (Nguyen Phu Trong)   | 당 서기장·국가주석 | 당 서기장 |
| 응웬 쉐언 푸크 (Nguyen Xuan Phuc) | 총리         | 국가주석  |
| 팜 밍 찡 (Pham Minh Chinh)     | 당 중앙조직위원장  | 총리    |
| 브엉 딩 후에 (Vuong Dinh Hue)    | 하노이시 당 서기  | 국회의장  |

- (정치국원) 18명 중 10명이 신규로 선출되었으며 중부지역(9명)의 비중 증가
- (중앙집행위원) 200명 중 80명이 신규로 선출되었으며 신규선출위원 중 40대의 비중이 50%를 넘음
- (부총리 및 내각) 다수 부총리, 장관들이 유임되거나 차관에서 승진
- (지방성)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성 리더 중 젊고 유망한 인사 다수 포진
- (지한파)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지한파 인사들이 건재
  - 응웬 푸 쯙(서기장), 응웬 쉐언 푸크(국가주석), 브엉 딩 후에(국회의장), 팜 밍 찡(부총리) 등이 지한파 인사로 꼽힘



### 2021 베트남의 파워엘리트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뚜옌꽝성

### □ 뚜옌꽝성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 면적-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면적: 5,867km<sup>2</sup>    인구: 784,811명('20년)</li><li>도시거주 비율: 13.82%</li></ul>                                                                                                                                                                                                                                                                                                                                  |
| 지정학적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뚜옌꽝성은 베트남 북부 산악 및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져 있음. 북쪽으로는 하장(Ha Giang)성, 남쪽으로는 푸토(Phu Tho)성 및 빈푹(Vinh Phuc)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옌바이(Yen Bai)성, 동쪽으로는 타이응웬(Thai Nguyen)성 및 박칸(Bac Kan)성과 인접해 있음.</li></ul>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공항 - 라오까이(Lao Cai)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뚜옌꽝-푸토(Phu Tho)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며 2023년에 완공예정임</li><li>도로 이용시 소요시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뚜옌꽝성 ↔ 하노이시: 2시간, 뚜옌꽝성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1.5시간</li><li>- 뚜옌꽝성 ↔ 하장(Ha Giang)성: 3시간</li><li>- 뚜옌꽝성 ↔ 옌바이(Yen Bai)성: 1시간</li><li>- 뚜옌꽝성 ↔ 타이응웬(Thai Nguyen)성, 빈푹(Vinh Phuc)성, 푸토(Phu Tho)성: 1.5시간</li><li>- 뚜옌꽝성 ↔ 하이퐁(Hai Phong)항구: 3.5시간</li></ul></li></ul> |
|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년대비 GDP 성장률: 7.16%</li><li>성 1인당 GDP: US 1,681.06 달러/년</li></ul>                                                                                                                                                                                                                                                                                                                                                |
|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총 수출액: US 135백만 달러 / 총 수입액: US 68백만 달러</li><li>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3.1%), 서비스업(10.6%), 농수산업(4.2%)</li></ul>                                                                                                                                                                                                                                                                                                         |
| 산업구조('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업/건설업: 35.65%, 서비스업: 39.81%, 농수산업: 24.54%</li></ul>                                                                                                                                                                                                                                                                                                                                                             |
| 노무여건('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48.31%</li><li>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30%</li><li>직업교육 이수자중 자격증 보유비율: 21.1%</li></ul>                                                                                                                                                                                                                                                                                                           |
| 최저임금('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뚜옌꽝시: VND 3,430,000 = US 149 달러(3급지)</li><li>람빈(Lam Binh)현, 나항(Na Hang)현, 찌엠호아(Chiem Hoa)현, 함옌(Ham Yen)현, 옌선(Yen Son)현, 선즈엉(Son Duong)현: VND 3,070,000 = US 134 달러(4급지)</li></ul>                                                                                                                                                                                                                                |
| 외국인투자 ('20.8월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뚜옌꽝성 내 외국인투자는 총 16개 프로젝트, 216백만 달러</li><li>(한국) 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뚜옌꽝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투자 금액기준으로 2위 (1위: 중국)</li></ul>                                                                                                                                                                                                                                                                                      |



## □ 투자환경

###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2번, 37번, 20번, 279번 국도가 뚜옌꽝성을 지남
- **(수로)** 뚜옌꽝성에서 하이퐁(Hai Phong)항구까지 3.5시간이 소요됨
- **(항공)** 뚜옌꽝성에서 노이바이공항까지 110km 떨어져 있으며 1.5시간이 소요됨

### ○ 관광 및 천연 자원

뚜옌꽝성은 생태관광, 문화역사관광, 영적관광, 휴양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상품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



나항(Na Hang) 호수 - 나항현



머(Mô) 폭포 - 나항현



띠옌(Tien) 동굴 - 함옌(Ham Yen)현



미람(My Lam) 온천 - 옌선(Yen Son)현

뚜옌꽝성은 500개 이상의 문화유물이 있어 전국박물관과 같다고 표현함. 또한 뚜옌꽝성은 특유의 축제, 전설, 민요가 있는 북부 산악지대 소수민족 문화의 발원지이며, 아름답고 시적인 풍경을 보유함. 뚜옌꽝성 사람들은 친절하고 관대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몇년 동안 뚜옌꽝성은 관광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관광을 중요 경제기여 부문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자연 조건, 생태, 문화전통 및 역사에 대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왔음.



## ○ 경제 구역, 공단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 2개의 산업단지: 롱빈안(Long Binh An), 선남(Son Nam)
- 8개의 산업클러스터: 폭응(Phuc Ung), 탐다(Tam Da), 닌라이(Ninh Lai), 타잉편(Thang Quan), 판타잉(Tan Thanh), 판틴(Tan Thinh), 쿤푸언(Khuon Phuon), 빈안(Binh An)

## ○ 투자희망 신규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 남선즈엉(Nam Son Duong) 공단
- 노이바이(Noi Bai) – 라오까이(Lao Cai) 고속도로와 뚜옌꽁을 연결하는 도로 근처에 있는 공단
- 선즈엉(Son Duong)현 닌라이(Ninh Lai)-티엔께(Thien Ke) 클러스터
- 선즈엉(Son Duong)현 탐다(Tam Da) 클러스터
- 함옌(Ham Yen)현 산업클러스터
- 옌선(Yen Son)현 산업클러스터



뚜옌꽁성의 행정지도

##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나향(Na Hang)현, 찌엠호아(Chiem Hoa)현, 람빈(Lam Binh)현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옌선(Yen Son)현, 함옌(Ham Yen)현, 선즈엉(Son Duong)현, 뚜옌꽁(Tuyen Quang)시



| 구분         | 투자지역                                                                                    | 법인세, 수입세, 토지임대료                                                                                                                                                                                         |
|------------|-----------------------------------------------------------------------------------------|---------------------------------------------------------------------------------------------------------------------------------------------------------------------------------------------------------|
| 산업단지       | 뚜옌꽝시<br>롱빈안(Long Binh An) 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세율)10년간 17%, 최초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li>수입세: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기계 및 자재 등 수입세 면제</li> <li>토지임대료: 7년간 면제(기본건설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
|            | 선즈엉(Son Duong)현<br>선남(Son Nam) 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세율)10년간 17%, 최초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li>수입세: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기계 및 자재 등 수입세 면제</li> <li>토지임대료: 7년간 면제(기본건설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
| 산업<br>클러스터 | 나항(Na Hang)현, 찰엠호아<br>(Chiem Hoa)현, 람빈(Lam<br>Binh)현에 위치해 있는<br>산업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세율)10년간 10%, 최초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li>수입세: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기계 및 자재 등 수입세 면제</li> <li>토지임대료: 11년간 면제(기본건설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
|            | 옌선(Yen Son)현, 함옌(Ham<br>Yen)현, 선즈엉(Son Duong)현,<br>뚜옌꽝(Tuyen Quang)시에<br>위치해 있는 산업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세율)10년간 17%, 최초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li>수입세: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기계 및 자재 등 수입세 면제</li> <li>토지임대료: 7년간 면제(기본건설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

## □ 외국인 투자현황

### ○ 외국인 투자

2020년 8월말까지 뚜옌꽝성 대상 총 외국인투자는 16개 프로젝트에 걸쳐 216백만 달러가 투자등록됨.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호주, 사모아임.

### ○ 한국계 투자

2020년 8월말까지 한국기업의 투자는 6개 프로젝트에 걸쳐 33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뚜옌꽝성에 투자하는 국가들 중 금액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 뚜옌꽝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 순번 | 프로젝트명                                           | 내용             | 투자국 | 투자금액<br>(US 달러) |
|----|-------------------------------------------------|----------------|-----|-----------------|
| 1  | Tuyen Quang Iron Steel                          | 철강 제품 생산       | 중국  | 107,000,000     |
| 2  | Tuyen Quang-Vietnam Chung Jye Shoes Manufacture | 신발 생산          | 중국  | 25,000,000      |
| 3  | Future Milk                                     | 낙농업            | 호주  | 19,000,000      |
| 4  | MSA-YB                                          | 수출용 의류 생산 및 가공 | 한국  | 12,100,000      |
| 5  | Jian Chang Tuyen Quang                          | 신발 생산          | 사모아 | 12,000,000      |
| 6  | SESHIN VN2                                      | 수출용 의류 생산 및 가공 | 한국  | 8,000,000       |
| 7  | HITARP Vietnam                                  | PE 타포린 생산      | 한국  | 6,000,000       |
| 8  | FOS                                             | 헤드폰 생산         | 홍콩  | 4,200,000       |
| 9  | TARPAULIN JOYOUNG VINA                          | 타포린 생산         | 한국  | 3,400,000       |
| 10 | Lottecinema Vietnam                             | 영화관            | 한국  | 2,800,000       |





## □ 공단 현황

## ○ 공단/클러스터 정보

| 순번 | 공단명/클러스터명                                                            | 설립년도 | 면적<br>(ha) | 입주율(%) |
|----|----------------------------------------------------------------------|------|------------|--------|
| 1  | 뚜옌꽝시 롱빈안(Long Binh An) 공단                                            | 2009 | 170        | 86.85  |
| 2  | 선즈엉(Son Duong)현 선남(Son Nam) 공단                                       | 2016 | 150        | 30.15  |
| 3  | 선즈엉(Son Duong)현<br>푹응(Phuc Ung) 클러스터                                 | 2019 | 75         | 75     |
| 4  | 함옌(Ham Yen)현<br>탄타잉(Tan Thanh) 클러스터                                  | 2018 | 72.2       | 18.10  |
| 5  | 찌엠호아(Chiem Hoa)현<br>안틴(An Thinh) 클러스터                                | 2015 | 75         | 41     |
| 6  | 나항(Na Hang)현<br>쿤프언(Khuon Phuon) 클러스터                                | 2015 | 20         | 22.8   |
| 7  | 옌선(Yen Son)현<br>탕궤(Thang Quan) 클러스터                                  | 2016 | 58.1       | 22.8   |
| 8  | 남선즈엉(Nam Son Duong) 공단                                               | 2021 | 150        | 0      |
| 9  | 노이바이(Noi Bai) – 라오까이(Lao Cai)<br>고속도로와 뚜옌꽝을 연결하는 도로 근처에<br>위치해 있는 공단 | 2021 | 150        | 0      |
| 10 | 선즈엉(Son Duong)현<br>탐다(Tam Da) 클러스터                                   | 2020 | 75         | 0      |
| 11 | 선즈엉(Son Duong)현<br>닌라이(Ninh Lai)-티옌게(Thien Ke) 클러스터                  | 2020 | 75         | 0      |
| 12 | 함옌(Ham Yen)현 산업클러스터                                                  | 2021 | 75         | 0      |
| 13 | 옌선(Yen Son)현 산업클러스터                                                  | 2021 | 75         | 0      |



## □ 투자 유망분야

1. 인프라: 교통 시스템, 공단/클러스터 인프라, 도시 인프라, 폐기물 및 폐수 처리
2. 산업: 청정산업, 첨단기술 응용, 지원산업, 기계·제조산업, 원료개발과 관련된 가공산업, 건축자재 제조산업, 음료업, 의료 장비 및 약 원료 생산 산업
3. 서비스: 미람(My Lam)온천, 나항(Na Hang), 람빈(Lam Binh), 판자우(Tan Trao) 관광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쇼핑센터 건설
4. 농업: 오렌지나무, 차나무, 약 원료, 농업 및 산림 보호 개발 프로젝트

## □ 뚜옌꽝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
| 뚜옌꽝성 투자진흥센터   | Mr. Nguyen Tien Hung<br>(부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l: +84 207 381 8459</li> <li>E-mail: xuctiendautu@tuyenquang.gov.vn</li> <li>Website: ipc.tuyenquang.gov.vn</li> </ul> |
| 뚜옌꽝성 공단관리 위원회 | Mr. Tran Duc Thuan<br>(부회장 권한 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l: +84 207 381 2335</li> <li>E-mail: bqikcntq@tuyenquang.gov.vn</li> <li>Website: bqikcntuyenquang.gov.vn</li> </ul>   |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구분<br>국가명 | 1988. 1. 1~2021. 7. 20 기준 누계 |            | 2021. 1. 1 ~ 7. 20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한 국       | 9,141                        | 72,163.29  | 225                | 603.99    | 2198.05   |
| 일 본       | 4,735                        | 63,201.18  | 109                | 1733.02   | 2536.72   |
| 싱가포르      | 2,752                        | 62,339.58  | 124                | 4796.88   | 5919.97   |
| 대 만       | 2,828                        | 34,910.63  | 40                 | 133.3     | 954.98    |
| 홍 콩       | 2,001                        | 26,897.58  | 70                 | 1023.8    | 1235.2    |
| 버진아일랜드(영) | 872                          | 22,167.85  | 19                 | 154.11    | 362.22    |
| 중 국       | 3,251                        | 20,103.31  | 121                | 771.06    | 1620.9    |
| 말레이시아     | 660                          | 13,002.98  | 12                 | 8.97      | 104.26    |
| 태 국       | 630                          | 12,906.81  | 23                 | 105.71    | 237.62    |
| 네덜란드      | 381                          | 10,368.13  | 15                 | 89.3      | 193.8     |
| 미 국       | 1,115                        | 9,684.88   | 45                 | 361.89    | 415.7     |
| 기타        | 5,601                        | 51,255.00  | 203                | 347.37    | 944.1     |
| 전체 합계     | 33,967                       | 399,001.22 | 1,006              | 10,128.66 | 16,723.52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연번 | 구분<br>산업         | 2021. 7. 20 기준 누계 |            | 2021. 01. 01 ~ 7. 20 |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1  | 제조, 가공           | 15,427            | 234,393.17 | 328                  | 3,461     | 7,901.32  |
| 2  | 부동산경영            | 967               | 61,062.95  | 30                   | 810       | 1,155.22  |
| 3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 169               | 33,906.86  | 16                   | 5,131     | 5,491.78  |
| 4  | 호텔, 외식서비스        | 895               | 12,549.44  | 11                   | 34        | 132.62    |
| 5  | 건설               | 1,764             | 10,733.10  | 18                   | 54        | 112.41    |
| 6  | 도소매, 유지보수        | 5,438             | 8,757.96   | 287                  | 184       | 630.96    |
| 7  | 물류운수             | 892               | 5,697.30   | 26                   | 323       | 377.63    |
| 8  | 채광               | 107               | 4,894.76   | -                    | -         | 1.36      |
| 9  | 교육, 양성           | 603               | 4,425.76   | 19                   | 8         | 23.85     |
| 10 | 정보통신             | 2,401             | 4,050.52   | 83                   | 25        | 96.56     |
| 11 | 기술과학전문           | 3,683             | 3,925.22   | 155                  | 63        | 532.82    |
| 12 | 농, 임, 수산         | 509               | 3,689.17   | 8                    | 30        | 97.51     |
| 13 | 예술 오락            | 138               | 3,393.57   | -                    | -         | 0.77      |
| 14 |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 80                | 2,895.03   | 1                    | 1         | 83.11     |
| 15 | 의료와 사회복지         | 152               | 1,999.85   | -                    | -         | 2.7       |
| 16 | 행정, 지원 서비스       | 512               | 983.51     | 23                   | 5         | 23.42     |
| 17 | 기타서비스            | 145               | 847.8      | 1                    | 0         | 2.87      |
| 18 | 금융, 은행, 보험       | 78                | 784.19     | -                    | -         | 56.63     |
| 19 | 가구내 고용활동         | 7                 | 11.07      |                      |           |           |
|    | 합계               | 33,967            | 399,001.22 | 1,006                | 10,128.66 | 16,723.52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수 출  | 2,434.8 | 2,641.8 | 2,826.5 | 1,863.5     |
| 수 입  | 2,366.8 | 2,530.7 | 2,627.0 | 1,887.6     |
| 무역수지 | 68.0    | 111.1   | 199.5   | -24.1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49,077  | 51,378  | 51,183  | 29,777      |
| 전기전자제품/부품   | 29,320  | 35,925  | 44,576  | 27,564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16,549  | 18,303  | 27,193  | 20,033      |
| 섬유/직물제품     | 30,448  | 32,850  | 29,809  | 18,462      |
| 신발류         | 16,238  | 18,320  | 16,791  | 11,796      |
| 원목 및 목제품    | 8,908   | 10,647  | 12,371  | 9,576       |
| 수송수단 및 부품   | 7,964   | 8,505   | 9,090   | 6,409       |
| 철강제품        | 4,549   | 4,210   | 5,258   | 5,602       |
| 수산물         | 8,794   | 8,543   | 8,412   | 4,978       |
| 원사(Yarn)    | 4,025   | 4,176   | 3,736   | 3,164       |
| 기 타         | 67,611  | 71,332  | 74,235  | 48,993      |
| 합 계         | 243,483 | 264,189 | 282,654 | 186,354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전자제품 및 컴퓨터  | 42,197  | 51,353  | 63,971  | 39,881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33,727  | 36,748  | 37,251  | 27,174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15,865  | 14,615  | 16,645  | 10,710      |
| 의류(원단)      | 12,774  | 13,276  | 11,875  | 8,519       |
| 플라스틱 원료     | 9,066   | 8,991   | 8,397   | 7,097       |
| 각종 철강제품     | 9,890   | 9,507   | 8,066   | 6,795       |
| 기타 비금속      | 7,249   | 6,385   | 6,052   | 5,157       |
| 플라스틱 제품     | 5,893   | 6,538   | 7,274   | 4,597       |
| 화학물질        | 5,163   | 5,128   | 5,016   | 4,448       |
| 화학제품        | 5,030   | 5,419   | 5,741   | 4,317       |
| 기 타         | 89,833  | 95,110  | 92,412  | 70,070      |
| 합 계         | 236,687 | 253,070 | 262,700 | 188,765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1        | 미 국        | 41,608        | 47,526        | 61,347        | 77,077        | 53,957        |
| 2        | 중 국        | 35,463        | 41,268        | 41,414        | 48,905        | 28,547        |
| <b>3</b> | <b>한 국</b> | <b>14,823</b> | <b>18,205</b> | <b>19,720</b> | <b>19,107</b> | <b>12,151</b> |
| 4        | 일 본        | 16,841        | 18,851        | 20,413        | 19,284        | 11,827        |
| 5        | 홍 콩        | 7,583         | 7,955         | 7,156         | 10,437        | 6,468         |
| 6        | 네덜란드       | 7,106         | 7,076         | 6,881         | 6,999         | 4,526         |
| 7        | 독 일        | 6,364         | 6,869         | 6,555         | 6,644         | 4,206         |
| 8        | 태 국        | 4,786         | 5,494         | 5,272         | 4,917         | 3,532         |
| 9        | 인 도        | 3,756         | 6,542         | 6,674         | 5,235         | 3,403         |
| 10       | 영 국        | 5,424         | 5,776         | 5,758         | 4,955         | 3,385         |
|          | 기 타        | 77,364        | 77,921        | 82,999        | 79,094        | 54,352        |
|          | 합 계        | 214,019       | 243,483       | 264,189       | 282,654       | 186,354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1        | 중 국        | 58,229        | 65,438        | 75,452        | 84,187        | 62,868        |
| <b>2</b> | <b>한 국</b> | <b>46,734</b> | <b>47,497</b> | <b>46,935</b> | <b>46,895</b> | <b>30,072</b> |
| 3        | 일 본        | 16,592        | 19,011        | 19,526        | 20,341        | 12,664        |
| 4        | 대 만        | 12,707        | 13,228        | 15,173        | 16,701        | 11,903        |
| 5        | 미 국        | 9,203         | 12,753        | 14,365        | 13,713        | 9,017         |
| 6        | 태 국        | 10,495        | 12,023        | 11,656        | 10,968        | 7,736         |
| 7        | 말레이시아      | 5,860         | 7,450         | 7,291         | 6,575         | 4,830         |
| 8        | 오스트레일리아    | 3,182         | 3,984         | 4,456         | 4,677         | 4,427         |
| 9        | 인도네시아      | 3,640         | 4,918         | 5,703         | 5,382         | 4,312         |
| 10       | 인 도        | 3,940         | 4,147         | 4,538         | 4,435         | 4,060         |
|          | 기 타        | 40,521        | 46,238        | 47,975        | 48,826        | 36,876        |
|          | 합 계        | 211,103       | 236,687       | 253,070       | 262,700       | 188,765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수출   | 47,749(46.3) | 48,629(1.8)  | 48,178(-0.9) | 48,510(0.7)  | 30,780(21.4) |
| 수입   | 16,176(29.5) | 19,632(21.4) | 21,071(7.3)  | 20,579(-2.3) | 13,592(15.0) |
| 무역수지 | 31,573       | 28,997       | 27,107       | 27,931       | 17,188       |

자료원: KITA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반도체        | 9,235(101.9) | 10,939(18.5) | 10,730(-1.9) | 11,501(7.2)  | 7,187(13.1)  |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7,367(193.0) | 8,909(20.9)  | 7,970(-10.5) | 9,552(19.9)  | 5,579(43.2)  |
| 무선통신기기     | 3,286(-36.7) | 2,632(-19.9) | 2,933(11.4)  | 3,467(18.2)  | 1,818(-1.9)  |
| 합성수지       | 1,442(19.8)  | 1,659(15.1)  | 1,624(-2.1)  | 1,615(-0.6)  | 1,390(59.5)  |
| 기구부품       | 2,612(57.7)  | 2,332(-10.8) | 2,230(-4.4)  | 2,250(0.9)   | 1,308(10.0)  |
| 철강판        | 985(20.1)    | 1,049(6.5)   | 1,158(10.4)  | 1,052(-9.1)  | 732(22.0)    |
| 석유제품       | 1,978(81.0)  | 1,980(-0.4)  | 2,194(11.0)  | 1,195(-45.6) | 697(-4.9)    |
| 계측제어분석기    | 1,058(145.1) | 696(-34.2)   | 783(12.4)    | 669(-14.5)   | 675(61.4)    |
| 플라스틱 제품    | 1,152(54.9)  | 1,205(4.6)   | 1,210(0.4)   | 1,115(-7.9)  | 656(3.9)     |
| 자동차부품      | 385(-12.7)   | 474(23.3)    | 668(40.9)    | 673(0.8)     | 548(84.3)    |
| 기타         | 6,925        | 6,743        | 6,685        | 5,774        | 10,190       |
| 합계         | 47,749(46.3) | 48,629       | 48,178(-0.9) | 48,511(0.7)  | 30,780(21.4)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7 (누계)  |
|------------|--------------|--------------|-------------|--------------|--------------|
| 무선통신기기     | 3,964(26.0)  | 4,835(21.4)  | 5,691(17.6) | 4,980(-12.5) | 3,011(-5.4)  |
| 의류         | 2,874(17.4)  | 3,570(24.2)  | 3,646(2.1)  | 3,146(-13.7) | 1,744(7.5)   |
| 컴퓨터        | 560(1.4)     | 534(-4.6)    | 679(25.9)   | 1,270(87.1)  | 1,143(104.7) |
| 신변잡화       | 797(24.2)    | 980(23.1)    | 1,053(7.4)  | 1,029(-2.2)  | 717(10.8)    |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604(976.6)   | 1,137(88.3)  | 1,197(5.2)  | 1,027(87.1)  | 451(-30.4)   |
| 목재류        | 511(19.4)    | 793(55.1)    | 657(-17.1)  | 632(-3.9)    | 446(19.5)    |
| 산업용 전기기기   | 317(10.3)    | 416(31.1)    | 479(14.8)   | 574(20.0)    | 426(38.8)    |
| 반도체        | 374(203.7)   | 396(5.8)     | 471(19.1)   | 561(18.9)    | 403(18.0)    |
| 영상기기       | 400(17.7)    | 329(25.6)    | 356(-2.0)   | 406(14.0)    | 306(25.7)    |
| 기구부품       | 496(89.9)    | 445(-10.4)   | 512(15.1)   | 481(-5.9)    | 329(29.6)    |
| 기타         | 5,279        | 6,197        | 6,330       | 6,473        | 4,616        |
| 합계         | 16,176(29.5) | 19,632(21.4) | 21,071(7.3) | 20,579(-2.3) | 13,592(15.0)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 구 분    |                      | 시 기       | 단위 | 국 가   |       |       |       |           |
|--------|----------------------|-----------|----|-------|-------|-------|-------|-----------|
|        |                      |           |    | 싱가포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 GDP증가율 |                      | 2020년(연간) | %  | △5.4  | △9.5  | △5.6  | △2.1  | 2.9       |
|        |                      | 2021년 1Q  | %  | 1.3   | N/A   | △0.5  | △0.7  | 4.48      |
|        |                      | 2021년 2Q  | %  | 14.7  | 11.8% | N/A   | 7.1   | 6.61      |
| 생산     | 산업생산<br>(증가율 또는 지수)  | 2020년(연간) | -  | 107.5 | N/A   | 109.8 | 147.1 | 3.4%      |
|        |                      | 2021년 6월  | -  | 125.9 | 154.3 | 116.4 | N/A   | 6.8%      |
|        |                      | 2021년 7월  | -  | N/A   | 249.5 | N/A   | N/A   | 2.2%      |
|        | 구매관리지수<br>(PMI)      | 2020년(연간) | -  | N/A   | N/A   | 102.4 | 44.7  | N/A       |
|        |                      | 2021년 6월  | -  | 50.8  | 50.8  | 111.8 | 53.5  | 44.1      |
|        |                      | 2021년 7월  | -  | 51.0  | 50.4  | N/A   | 40.1  | 45.1      |
| 소비     | 소비자동향지수              | 2020년(연간) | -  | 99.8  | N/A   | 79.5  | 93.6  | N/A       |
|        |                      | 2021년 6월  | -  | 101.9 | N/A   | 64.3  | 107.4 | N/A       |
|        |                      | 2021년 7월  | -  | 101.7 | N/A   | N/A   | 80.2  | N/A       |
|        | 소매판매                 | 2020년(연간) | -  | 81.7  | N/A   | 131.0 | 197.5 | 2.6%      |
|        |                      | 2021년 6월  | -  | 83.6  | 1.8%  | 125.8 | 198.5 | △6.6%     |
|        |                      | 2021년 7월  | -  | N/A   | N/A   | N/A   | 181.9 | △19.8%    |
|        | 소비자물가<br>(증가율 또는 지수) | 2020년(연간) | %  | △0.2  | N/A   | △1.2  | N/A   | 3.2       |
|        |                      | 2021년 6월  | %  | 2.4   | 4.1   | 3.4   | N/A   | 2.4       |
|        |                      | 2021년 7월  | %  | 2.5   | 4.0   | N/A   | N/A   | 2.6       |
| 투자     | 고정자산투자               | 2020년(연간) | %  | △14.3 | N/A   | 1.5   | △5.0  | △25       |
|        |                      | 2021년 6월  | %  | N/A   | N/A   | 3.1   | △0.2  | △2.6(누계)  |
|        |                      | 2021년 7월  | %  | N/A   | N/A   | N/A   | △7.5  | △11.1(누계) |
| 고용     | 실업률                  | 2020년(연간) | %  | 3.0   | 10.4  | 4.5   | 7.1   | 2.5       |
|        |                      | 2021년 1Q  | %  | 2.8   | 8.7   | 4.7   | 6.3   | 2.4       |
|        |                      | 2021년 2Q  | %  | 2.8   | 8.7   | 4.6   | N/A   | 2.6       |
| 무역     | 수출증가율                | 2020년(연간) | %  | △3.2  | △10.1 | △1.4  | △2.2  | 6.5       |
|        |                      | 2021년 6월  | %  | 22.3  | 17.6  | 27.2  | 54.5  | 17.3      |
|        |                      | 2021년 7월  | %  | 16.4  | N/A   | N/A   | 29.3  | 8.4       |
|        | 수입증가율                | 2020년(연간) | %  | △7.4  | △23.3 | △6.3  | △16.9 | 3.6       |
|        |                      | 2021년 6월  | %  | 28.2  | 34.2  | 32.1  | 60.1  | 33.5      |
|        |                      | 2021년 7월  | %  | 22.0  | N/A   | N/A   | 44.4  | 29.9      |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VID-19 확산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 제도 개요

베트남 관세총국은 2021년 8월 17일자 공문번호 4059/TCHQ-GSQL을 통하여 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을 통한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관세당국의 서면요청으로 성사된 본 제도는 발표 즉시 베트남 각 세관국에서 적용되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검증 및 확인 절차에 관한 결정문 4286/QD-TCHQ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 ☑ 적용방식



◎ 적용대상 : 한국-베트남 간 체결된 아래의 FTA

- 한-아세안 FTA (AKFTA)
- 한-베트남 FTA (VKFTA)

◎ 제출방법 : 세관 전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서 첨부파일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자료 제공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의처 : KOTRA 김태윤 관세사 ☎ kty5714@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23/2021/QĐ-TTg)**

□ 추진배경

○ 노동보훈사회부 제언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지원을 위한 총리 결정 발행(2021.7.7.)

□ 주요 내용 요약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보험료 감면                     | 노동재해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용자                                       | 사회보험료 납부근거인 급여기금의 0%, 감면기간 12개월<br>* 보험료 감면 시 감면금액을 근로자에 전액 지급                                                                                  |
| 퇴직 및 유족연금 납부 정지            | '21.4월까지 사회보험료 전액 납부 또는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15% 감소 시              | 6개월간 정지, 정지기간 만료시 추가 납부<br>* No. 42/NQ-CP(2020.4.9.), No 154/NP-CP에 따라 퇴직 및 유족연금 납부 정지 대상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되나 총 기간은 12개월 이내                           |
|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훈련 및 교육        | 사용자가 실업보험료(12개월 이상) 납부, 구조조정 중, 전분기 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VND 1,500,000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 근로계약 중단, 무급휴가 근로자          | 관할 당국 결정으로 영업 중단된 기업, 협동조합 등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중단 또는 무급휴가 연속 15일 이상   | i) (15일 초과 3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VND 1,855,000 지원<br>ii) (30일 초과) 3,710,000 지원<br>*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 휴직대상 근로자                   | 노동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휴직, 관할당국 지시로 14일 이상 격리                         | 근로자 1인당 VND 1,000,000<br>*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 실업수당 못 받는 근로 계약 해지 근로자     | 관할 당국 결정으로 영업 중단된 기업 등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직전까지 사회보험 가입하였으나 실업수당 미적용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br>*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 치료·격리 조치 당한 아동과 국민         | COVID-19 치료를 받거나(F0) 격리 조치 당한(F1) 아동(16세 미만)과 국민               | 대상자 1인당 VND 80,000 식비수당 지급, F0는 45일 이내 / F1은 21일 이내<br>* 아동 1인당 VND 1,000,000 일시금 추가                                                            |
| 공연·예술분야 공무원 및 여행 가이드 근로자   | 4급 전문 자격증 보유 미술감독 등, 공연예술 공공부문단체 근무자로 당국 결정으로 15일 이상 중단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                                                                                                                           |
| 관광가이드 근로자                  | 관광가이드 자격카드를 취득하고 업체와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등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                                                                                                                           |
| 가게 사업                      | 등록된 사업으로 과세대상, 당국 결정으로 15일 이상 영업 중단                            | 가게당 VND 3,000,000                                                                                                                               |
| 휴업급여,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 대출 | 사회보험료 납부 근로자 15일 이상 휴직, 악성채무 부존재, 관할당국 결정으로 일시휴업 등             | i) (휴업급여) 최대 3개월 간 휴업급여 x 근로자수 / 대출기간 12개월 미만<br>ii) (생산회복임금) 최대 3개월간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 대출기간 12개월 미만                                     |



클릭 시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 베트남 취업자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21.8.26, 주베트남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코트라>

### □ 배경

- “베트남 근무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 시행(21.2.15)으로, 베트남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기관·조직·기업 확인이 필요
- 우리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경력확인서\* 발급 개시
- \* 경력확인서 : 경력증명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 □ 경력확인서 신청

- (대상) 베트남 근무경력 확인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서류 원본 확인을 위해 방문 또는 우편만 허용
- (신청서류) 경력확인 신청서(별첨1), 경력증명서(별첨2),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반드시 첨부(기간입증 서류 없을 경우 불가)
- ※ 경력증명서에 기업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서류접수 및 경력확인 기관
-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베트남 중·북부 기업의 경력 확인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남부 기업의 경력 확인
- ※ 다남 기준, 중·북부는 베트남EPS센터(다남포함), 남부는 호치민무역관에 신청

### □ 경력확인서 발급 및 교부

- (발급기관)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 신청한 서류는 확인 후 베트남EPS센터에서 발급
- (경력확인)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해 기업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사실여부 등 확인
- (서류발급) 경력확인이 완료되면 경력확인서(별첨3) 발급
- (소요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교부방법) 본인 직접 수령 또는 우편수령 택일

### □ 참고사항

- (온라인 발급) 베트남EPS센터의 서류 발급은, 온라인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 개시 전까지 운영예정이며, 온라인 발급은 별도 공지
- (서류 활용)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는 한국 외교부 영사센터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베트남에서 활용가능



클릭 시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1st Anniversary

KOTRA 베트남 무역  
뉴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주년을  
맞이합니다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